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金鶴香油

社說

早婚의弊害

一

物質文明이 極度로 發達되면 發達될수록 世態가 窮迫하여지고 世態가 窮迫하여지면질사록 犯罪는 이에正比例하여지는것이 오날社會의 한개지原則처럼되엿것은 再言할必要도업거니와 二十歲未滿의 未成年者인 少年少女의 犯罪狀況도 이에例外가될수업다 現在朝鮮에는 仁川、開城金泉의 三個少年刑務所가잇는데 이三刑務所의 今年三月末現在受刑者數는 都合一千六百三十七名으로 그中 竊盜가 總數의 約八割强을 占하야 斷然第一位에잇고 强盜、詐欺、恐喝等이 約五十名쯤된다고한다。이것들犯罪는 그原因을 探究한다면 여러가지理論이 紛紛할것이나 何如튼 어느나라社會에서든지 어는 能히 자저낼수잇는者이다。그러나少女의犯罪動機가 早婚에잇다는 事實은 우리朝鮮이아니고서는 全世界를通하야 자저낼수업는 特殊事情이라할것이므로 吾人은 玆에論述하려하는 所以도 여기에잇는것이다。

二

元來結婚은 一言而蔽之하면 完全獨立한 男女二性의 自由로운 人格的結合이어야 할것이다。따라서 어는 어느一方的 意思만으로도 成立될수업는것은 勿論이오 當事者以外의 第三者의意思나 或은 權力 金力으로써況且意思와 生理가 未熟한少女에게 强制함은 絶對로 不可한일이다。우리가 옛날歷史를 들추워보면 曚昧한 社會에서는 掠奪婚도업는것은 아니요 또 二十世紀의 文明의 最高峰을 자랑하는 오늘社會에서도 物質的 慾樂이良心을 가리어 本心이아닌 結婚을 行하는者 非一非再하니 前者는 直接强力에 依하야、後者는 間接的物質에 依하야 强制的結婚을 行함에 不過한것으로 不合理한 結婚을 行하는點에 何等의 差異를 發見치못한다。況且 現代社會에잇서서의 物質的介入에依한 結婚에잇서서는 그것이 表面으로는 神聖을 假裝하고나오는만치 結婚生活에 桎梏이되며 다시酷言하면 그自體가 賣淫의 範疇를 벗지못하는者 만커늘 어찌 慨嘆할바아니랴。

三

한번 우리朝鮮社會를 돌다보면 封建的殘滓로서의 家族制度가 牢固하게 뿌리박혀 여러가지矛盾을 醸成하고잇는데 結婚에對해서도 家長이 權力的 經濟的 或은 暴力的行爲까지 加하야 當事者의 本意가아닌 結婚을 强毅하는일이 許多한 狀態에잇다。그境遇 往往히 專門大學의 敎養을맛고 結婚에對해서도 一家見을 가진 意志가堅固하게보이는 男子에 잇서서도 이弊害의 襲來의 結婚에對하야 反抗치못하는者 잇거늘 하물며 二十歲未滿의 少女들이야 敢히 이에反抗할 勇氣조차 어찌내리오 비록 反抗한대자 出家나自殺이란 消極的手段으로 反抗하니 이어찌 寒心한일이아니랴。아직言語조차 나지안흔 人形的不合理的結婚은 그들이 漸次成長하매 家庭生活의 桎梏을 感하고 그結果 男子는 放蕩 淫逸 煩悶을 일삼고 女子는 自殺을 演出하며 或은 出家浮浪하는中 가지罪惡을 비저내게되는것이니 最近統計에 依하야보더라도 少女의殺人放火犯만 七十六이요 其外 竊盜犯等은不知其數라하니 이는當事者自身의 不幸일뿐더러 兩家又는 全社會에 害毒을 끼치는者이며 社會는 모름지어 함께 反省치안흐면아니될것이다。

四

叙上한바와如히 오날의 家族制度 即 結婚制度에는 여러가지矛盾이잇다는것은 周知하는바어니와 個中에도 意思도 뭇저못하고 生理的으로도 成熟치못한 少女에 不合理한 結婚을 强要함은 가장重大한 社會的罪惡이라하야도 過言이아닐것이다。그럼으로 어는 早婚에 個個人의 私事가아니오 社會的重大問題로써 우리에 課된 緊急問題일것이다。따라 封建的殘滓인 不合理한 制度를 打破하야 子女를拘束으로부터 解放되며 自由로운 人格的結合을 要求하는同時에 從來除外되어오던 女性의 地位를 向上시키며 意思生理가 모든未熟한 少女의 强制結婚을 廢棄하는者는 社會的道德的으로 制裁를 加하야 [illegible] 치안케 할것이다。勿論이어는 女子를 그 自身의 [illegible] 關하야 男性에 對한 [illegible] 脫出하며 그들自身의 社會的 [illegible] 分과 權利를 主張하야 할것은 勿論이다。要컨대 自由로운 意思的人格的結合에依하지안흔結婚은 社會的罪惡의 重大한 根源이되는 만큼 社會는이를 [illegible] 을거괴反省하고 芟除하야 如斯한 不幸이 再次招來치안토록하여야할것이다。

各部隊猛進攻으로 徐州敵陣動搖開始

李宗仁의苦悶深刻化

【北京十二日發同盟】蔣介石軍이 東支那最大의 據點으로 힘입는 隴海線徐州方面에잇서 戰機 차차完熟하야 我軍은 決河의勢로서 南山東一帶에 蟠居한 敵軍에로의 猛攻을開始하야 어미隴海線前面의 敵의據點을 모주리 攻略하고 漸次東西로 包圍의體勢를 整齊하야 四十五個師四十萬의敵을 殲滅하려하고잇다 即徐州正面의 韓莊東方 大運河線에서 ○○部隊는 二五○高地에 據한 約三個師의敵에게 猛擊을加하고 縱隊、台兒莊東方에서 ○○部隊는 一齊히 正面의敵과激烈한 戰鬪를開始 逐次 敵을 壓迫하야 마치내 滁城西南方五里의 狼子溝를占領하고 敵을隴海線가까이 追擊中이다 狼子溝는 隴海線北方三里地點에잇는 部落으로이땅의 占據에依하야 隴海線上新安鎭方面의敵은 深刻한脅威를밧게되여 敵陣의動搖는掩蔽할수업게되엇다 그리고 西部戰線金鄉東方地區에서도 到處에서 敵을驅壓하고 沼澤地帶에蟠居하는 敵行動圈을 縮壓하야 戰況은順調로 進展되고잇다 이리하야 徐州를中心으로隴海線의敵軍은 津浦線北端一帶南山東을占한 我軍의尖銳한氣魄에 制壓되여 逐次本據를放棄할수밧게업는悲運에陷하려한다 一方南方에서는 我軍의破竹의勢로써 進擊中인데 腹背의脅威를밧는 敵軍은 벌서부터動搖하는데치 濃厚하야 總司令 李宗仁의苦悶은 더욱深刻化하고잇다

廈門全市占領 報道部經過發表

【上海十二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二日午前十一時發表 廈門攻略部隊는 昨十一日 航空部隊援助下에 戰果를 擴大하야夕刻까지에完全히廈門全市를 占領하고 進擊을 開始한 海軍陸戰隊는 連續的海軍航空部隊의 爆擊支援下에 敵의抵抗을排除하면서 前進을繼續하야 正午頃各砲臺를 占領 附近陣地를 掃蕩하고 夕刻까지에는 廈門全市를占領 航空隊는 陸戰隊에 協力하야 敵部隊及敵陣地를 反復爆擊하고 또大陸方面에서 軍用自動車群을 爆擊하야 十餘臺를 爆破하엿다

海軍航空機卅臺

徐州廣東等各地空襲

【上海十二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二日午前十一時發表 昨十一日 海軍航空隊는 中南支에 亘하야 依然 活潑한 活動을하엿다 徐州에 對하야는 鈴木少佐가 指揮하는 約三十機를비롯하야 前後四回의 攻擊을 敢行하야 東北兩車站에 集結한 多數의 軍用貨車群과 集積한 軍需品倉庫를 爆破하야 各所에 火災를이르켜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廣東方面에서는 天河飛行場의 夜間攻擊을 敢行하야 前後二回의爆擊에依하야 格納庫에 大損害를주엇다 其他溫州 麗水 南城 飛行場을 攻擊하얏스나 敵機를 보지못하고 飛行場施設을 爆擊하엿다

交戰하지안코 廣東制空權掌握

【香港十二日發同盟】支那機下報道를 綜合하면 南支警備 海의荒鷲○○機는 十二日午前八時半廣東 天河飛行場을 襲擊하엿는데同所에서 待機하고잇던 支機十一機는 我空軍의 襲來에 飛上하야 戰鬪할 餘暇도업시 北方으로遁走하엿다 廣東의 制空權을完全히掌握한 我軍은 粵漢線廣九線의交叉點과其他沿線各處에 大爆擊을加하고 全機悠悠히 歸還하엿다

司法省率先하야 暑休全廢決定

【東京電話同盟】司法省에서는十二日 鹽野法相以下 次官 各部局長이 參集하야 省議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 各省에 率先하야 暑休를 全廢키로 決定하고 『今年度에는 暑中休暇를 不許함』右 英斷의 訓令을 卽日本省은 勿論 全國裁判所 檢事局 刑務所 少年審判所 矯正院 保護觀察所 供託局關係部門에 通達하엿다 同省의 暑休는 例年七月부터 九月까지 各部課 交替로 二十日間式 休暇하엿든것을 斷然廢止한것이다

加藤吳鎭長官 十二日釜山向發

新興工業地北鮮及 西鮮方面을 視察하고잇든 加藤吳鎭守府司令長官은 明十二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通過 『노조미』로釜山에向할터이다

勇躍前進하는 添天部隊

蘇聯의惡質데마

駐『아』蘇領事에間諜을强要햇다고抗議 外務省當局逆抗議提出

【東京電話同盟】蘇聯邦政府는桑原아프카니스탄帝國代理公使가四月初旬 同國駐在蘇聯大使에對하야 日本의스파이가되여주기를强要하엿다는 荒唐無稽한 事實을 新聞通信을通하야 發表하엿슬뿐 아니라 蘇聯政府는 過日在京蘇聯大使로하여금 廣田外相에對하야 右報告에基하야 抗議를提出케하엿는데 堀內次官은 十二日午後時日蘇聯大使를 外務省에招致하고 左와如한 情報部長談과 如한逆抗議를하야 反省을求하엿다

過日東京蘇聯大使는 廣田外務大臣을來訪하야 在아프카니스탄帝國代理公使는 同國駐在新任蘇聯邦大使에對하야 我國을爲하야協力하기를提言하엿는데 이는蘇聯邦을 侮辱하는것이라고抗議하여왓다 廣田大臣은如斯한 事實은全然잇슬수업는일이라고 蘇聯邦大使의抗議를맛지안엇는데 其後在아프카니스탄代理公使도 如斯한것은 全然事實無根으로 其實은 帝國代理公使와 蘇聯邦大使와의會見은 初對面이엿는데 當時는全然儀禮的의것으로 時候의人事以外에는 別로談話하지안코 五分間前後하야 終了하엿다고 報告하여왓다 그런데 蘇聯邦政府는 스타우르스키大使로시켜 抗議케 하엿슬뿐 아니라 最近新聞에 本問題에關하야 反日記事를 실리고잇는바 大體로 이事件은 도리혀蘇聯政府가 其在外外交官에 對하야 恒常破廉恥한 事實을 强要하고잇는것을 暴露하는것이라고보나 常識잇는 人間은 이런記事를보아도 一笑에附할것이다 如何튼 在카불蘇聯大使의 本國政府에 對한報告는 帝國在外使臣을 誣하는것으로 十二日 特히堀內次官으로부터 東京蘇聯邦大使에對하야蘇政府가 在카불 同國大使의 그릇된 報告에 基하야 抗議한데 對하야 同國政府의 注意를 喚起하고 如斯한抗議事態가 我方에 對한非友誼的行爲라는것을 指摘하고 다시 蘇聯邦政府機關紙가 如斯히 事實無根한일을 자조報道함은 全然 意識的으로 反日宣傳을 함이라고 抗議하고 至急其明確한 措置를取하기를 要求한바잇섯다

敵爆擊機十餘臺 固鎭附近에來襲

【○○十二日發同盟】十一日午後九時頃 敵爆擊機十餘臺는 固鎭附近에 襲來 爆彈十餘發을 投下하엿는데 모두 沼澤地도는 田中에 落下하야 損害가업섯다 敵機는 我地上砲火의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으로 西方으로 遁走하엿다

大谷拓相 東京出發延期

【東京電話同盟】大谷拓相은 來十四日 午前七時 羽田發飛行機로 滿鮮地方의 移民狀況을 視察키爲하야 出發할豫定이엿는데 對支中央機關設置問題 其他 當面의 重要政務가 山積하엿기때문에 一時 延期하야 二十三、四日頃에出發하기로되엿다

回敎堂落成式

【東京電話同盟】東京回敎徒의 熱烈한 待望裡에 澁谷區代代木大山町에 灰色大伽藍이 훌륭히 完成되엿다 落成式은 今日二時부터 멀리에멘國으로부터 來朝한 國王御名代 호센王子 埃及國王御名代 베이公使等臨席下에 異國情緖도 濃厚하게擧行되엿다 예멘을 爲始하야 이라크 埃及 亞刺比亞 瓜哇 印度 스마트라 滿洲國 支那 日本等十餘國의 回敎徒가 터번을 머리에 감고 寬衣를 입은 約三百餘名과 頭山滿翁을비롯하야 陸海軍回敎徒關係者等約二百名

敵後方攪亂策

○○部隊에게 慘敗

【濟南十二日發同盟】山東、江蘇兩省의敵에對한 我掃蕩部隊는 着着그目的을 達하고 잇스므로敵은 我後方을 攪亂하려고 津浦線遮斷을 企圖하엿스나 我○○部隊에 大打擊을받고 到處에서 敗殘의 慘狀을 演出하엿다

一、運河西側 山岳地帶에 잇든 第三路軍 八十一師는 數日前부터 鄒縣西南側을 北上 津浦線 兗安西方二十키로 肥城에 集結하고 잇섯스나 八日夕○○部隊는 此를擊破하야 敗走케하엿다

一、○○部隊는 五日聖佛站附近에서 敵匪數百을 殲滅시켯다

一、同○○部隊는 八日鄒來肥城附近에 잇는 八十師第百二十軍 一部 約五百을 攻擊하야 午後六時에 赤匪此를 擊滅하엿다

以上으로 敵의 後方攪亂根據地肥城一帶는 完全히 我方手中에 歸하고 敵은 死體二百餘를 遺棄한채로 南方으로 退却하엿다

北支中支兩會社

設立委員第一回總會

【東京電話同盟】北支開發、中支振興兩會社設立委員初總會는 十二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된바 委員側으로는鄕誠之助委員長外六十九名과 政府側으로 近衛首相、廣田外相、賀屋藏相、吉野商相、瀧企畫院總裁、風見書記官長、船田法制局長官其他關係官出席하야 鄕男座長席에着한바 近衛首相으로부터 別項과如한人事가잇섯고 議事規則의 審議로드러가 原案대로可決한後 風見書記官長으로부터 經過報告及法案의 說明이잇섯는바 이에對하야 菱廣藏氏로부터 對支政策의 一元化를 [illegible] 에도 不拘하고 政府內에 意見의一致를 보지못한것자리 傳하고잇는바 政府의 對支方策如何라는 質問이잇섯는데 이에對하야 風見書記官長으로부터 對支根本方針은 이미確立不動의것이다 對支機關에 對하야는 目下愼重히 硏究하는中으로 一元化를目標로 進行하고잇다는旨의答辯이잇슨後 議事를 다시檢討하야委員會事務處理要綱의 決定에伴하야 第一(北支)第二(中支)兩特別委員會를 設置하기로하고 兩特別委員會의 委員을 別項과如히 決定하고 委員長互選의結果 鄕誠之助男(第一)池田成彬(第二)兩氏가 各其決定된後 正午에散會하엿다 그리고設立準備委員會의事務所는 内閣總理大臣官房會計課에 두기로하고 內閣書記官長官舍로 決定하엿다

辭令

五月十二日附發令(朝鮮總督府)
總督府遞信技師 大西平吉
陞敍高等官二等
遞信省事務官 奧田勝八
兼任總督府遞信副事務官(七等)
(釜山高女)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吉川恒義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六等)
補東萊公立中學校敎諭
全南道產業技手 堀崎忠宗
任朝鮮產業技師(七等待遇)
補全羅南道產業技師
總督府鐵道局副參事 新谷中川啓次郞
總督府道理事官
依願免本官(各通)
遞信省事務官兼總督府遞信副事務官 葛西和三郞
免兼官

獨政府滿洲國承認

滿獨修交條約調印으로

【伯林十二日發同盟】獨逸政府는 十二日午前十一時滿獨修交條約의 調印으로 正式 滿洲國을 承認하엿다

滿獨修交條約

十二日正式調印完了

【伯林十二日發同盟】滿獨修交條約은十二日午前九時獨逸外務省에서 滿洲國代表加藤同吉氏와 外務次官베르만氏間에 正式調印되엿다

修交條約全文

【新京十二日發同盟】滿洲國外交史上 歷史的一頁를加한 滿獨修交條約의 正式調印은 十二日午後五時(日本時間) 伯林에서 加藤滿洲國政府全權과 베르만外務次官과의間에 完了되엿는데 同條約全文은 左의四條로 構成되엿다

第一條 兩國은 獨立平等한 立場에서 相互領事를 交換駐在케하고 또他國領事와 同等한 待遇를 附與함

第二條 兩國國民은 相互居住永住營業의 自由를獲得하고 當該政府는 이에對하야 生命財産의保護를與함

第三條 帝國政府는 本條約調印後 兩國의 親善關係를 增進케하기爲하야 速히通商交涉을 開始함에 同意함

第四條 本條文은 滿獨兩國各一通式으로함

그리고 正文의發表는 兩國元首의 批准完了를待하야 新京伯林兩地에서 同時에 行할터이다

鄲城完全占領

臨漁集도遂陷落

【北京十二日發同盟】十二日午後五時軍司令部發表

一、我○○部隊는 十一日午後七時鄲城을 確實占領하엿다

二、高橋飛行部隊는 十日午後四時桃塘(台兒莊西南十五粁)에集結中인 約六、七千의敵을攻擊하야 多大한 損害를與하엿다

【註】鄲城은 山東省西端部黃河岸에 가까운鉅野北方의要衝이다

【○○에서十二日發同盟】十二日午後三時지나 臨漁集은 마침내 我○○部隊에依하야 占領되엿다 同地는 宿縣西北約四十粁에永城과함께 津浦線南段聯絡의敵重要據點이엿다

스委員演說에 重光大使嚴重抗議

【東京電話同盟】스미루노프蘇聯海軍人民委員이 海參威에서 去五月一日 메이데이觀兵式日에 臨하야 日本의 對支行動에關한 無禮한 演說에對하야 重光蘇聯大使는 十日附公文으로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에게 如左한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스미루노프海軍人民委員의 演說은 蘇聯과 正常關係에잇는 帝國에 對하야 許할수업는 惡意의 誹謗을加한 挑發的인것이다 어런演說을 海軍人民委員이라는 要職에 잇는者가 行한 事實은 帝國政府로서 斷然默過할수업는일이다 따라 帝國政府는 여에 嚴重抗議를 하는것이다

米空軍大演習

十一日부터六日間

【紐育十一日發同盟】米陸軍空軍總司令官 프랑크·앤드류스 少將은 米空軍은 十一日午前零時부터 六日間 大演習을 開始할 旨를發表하엿다 右演習은 歐羅巴及 南細亞의 數國이 聯合하야 大西、太平兩洋으로부터 同時에 米國을 攻擊하는 想定下에 實施되는것이다

五月一日在米 一千百五十萬石

【東京電話同盟】農林省第二次發表 宮城縣外 十七地方의 五月一日現在 在米高는 一千百五十三萬八千八十八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一萬二千五百二十五石의 增加를 示하엿다 그리고第一次 發表分을 合計하면 二千五百四十六萬八千三百四十三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一萬二千七百七十四石의減少를示하엿다

廈門島兩砲臺占領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十二日午後一時四十五分公表 我部隊는 昨十一日夜廈門島磐石砲臺를 占領하고 本日午前九時胡里山砲臺를 攻略하엿다

夕刊後市況 十二日

◆各地 期米 後止◆

	中限	先限
大阪	三·三	三·至
釜山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名古	[illegible]	[illegible]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illegible]

今日本紙朝刊夕刊合十六面

可愛い赤ちやん
귀여운에기들
번대와 벼룩과 모기가 에기네를 괴롭게하는 時季!!
メンソレータム으로氣分이極快
가려움과아픔은 곳나아버립니다
世界之家庭藥
皇室の慰問袋にメンソレータム
價 二十五錢 四十五錢 九十錢 一圓八十錢
特効 살거 外傷 火傷 감기 頭痛 神經痛 痔疾 化膿 凍傷 皮膚病 하 痛 치 虫刺
メンソレータム 멘소레-탐
13—5—B
日本メンソレータム本舖

カゲメ ケチヤップ

新規開業者ハ特ニ御相談ニ應ズ
賣藥·新藥·品·藥品附屬店
御専門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振替口座京城四五七番
御申込次第月報進呈

國際見本市館 平壤府景昌里二二五
見本과型錄을付送하시압

和信萬年筆
專賣特許金펜附 品質保證付
和信本支店·各地連鎖販賣店

全北支社 私書函 全州郵便局私書函第五一號

鑛山 機械 農具 工具
平壤南門通 五六商会本店 電話代表56
カタログ進呈

增稅憑藉의物價引上 弊端防止에協力하라

課稅의嚴正公平、執務의敏速的確、親切丁寧等

稅務監督局長會議서 南總督強調

전시체제(戰時體制)하에 전조선각층의부담을 마련가지고 요리하는세무감독국장(稅務監督局長)회의는 복잡한전시중세기타시국에편한 각종의부담을 상정하는만치 례년에보지못하든긴장공기속에서 삼일간의 예정으로총독부에서 개최되엿다

이회의에서 남총독(南總督)의 훈시、자문사항(諮問事項)으로 토의되는 내용은 사변발발이후 처음회의인만치자못중대성을가지고잇는것은 물론시국해결의 전도는 요원하야 국민부담의증가도자연의추세로도 라할것이다 사변발발후에 중세를단행하야 그수입중에서 작년도에는일억오십만원을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 조입(繰入)하얏스나 금년도에는 팔백구십만원을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 조입하얏스니 이만치 일반의부담의증가는 면키어려운사정인동시에 금차중세는 현하시국관계상 부득이한사정이다 이와가티부득이한부담이 증가되는데 제일자각할것은 검소를 본위로조비절약을 단행하지안코는 안된다는것을 최근편미한게 부르짓는것이다

어회의석상에서한 남총독의훈시일단을보면=금차중세에 대하야 될수잇는대로 부담과중(負擔過重)을피하는 조치를 강구하고잇스나일면으로는 상당히 부담의 증가를보는자도 잇슬터이므로 이점에 대하야 파세의 적확을도모하는동시에 물품세파세범위확장으로하야 업자중에는 중세를 빙자하고 물가의부당인상을 꾀하는 폐단이 업다고단언키 어려운것인즉 편계당국과 긴밀한연락을 취하야 이와가튼 악폐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한다하야 출석중의 감독국장 기타 편계관으로하여금 일층긴장케하얏다 또 일반민간사무처리중에 대하야는 파세의 엄정공평、집무의 민속적확、민중에게 친절정녕의 상대원칙을 강조하엿다

二十日은結核豫防데ㅡ

一般民衆에게 大大的으로宣傳

市內에선講演、映畵會開催外

京城運動場昌慶苑等無料開放

장기전의 각오를 굳게하고잇는 오늘 총후국민의 건강문제는 체위향상(體位向上)문제와 아울러 가장중요한것으로 내무성에서는 오는이십일부터 이십칠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건강주간(健康週間)으로 정하고 국민대중에 보건위생 사상의 선전보급을 대대적으로 하기로되엿다조선에서는 특히 주간으로 실시하지는안흐나 주간중에서 결핵예방데ㅡ(結核豫防日)인 이십일만 전조선적으로 결핵예방에대한 대대적선전을하야 국민건강의 암(癌)이되어잇는 결핵의박멸에 매진하기로되엿다 이날경기도에서는 부민관(府民館)에서 결핵에관한 강연과영화회를 하는외에 시내각영화상설관의 휴게사진막사이(幕間)에예방선전영사를하며 화신백화점 경성우편국 경룡관(京龍館)서대문우편국에서 통행인의요구에 의하야 가래침을무료로 검사한다 이외에 도시인에게이날하루만이라도 명랑한기분을가지고 유쾌한날을 보내도록하기위하야 경성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며 창경원(昌慶苑)덕수궁(德壽宮)을 반액으로 할인하야 한사람이라도 만히드러가 깨끗한공기와 해빗에쏘여 건강에 도움이되도록하기로 되엿다

志願兵志望한 青年의赤誠

반도인지원병제도실시에 감동한 경성본정(本町)일정목 북내상점(北內商店)의 이용길(李龍吉)군은 십이일 남(南)총독에게 금십원과 『나는 지원자의 한사람입니다 적은돈이나 총독부훈련소(總督府訓練所)의설비금에충당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쓴 편지를 보내여 적성을 피력하엿다

歸帆―― 昨日・漢江所見

電車小兒轢傷

십이일오후오시오십분경에 영천(靈泉)행전차이백십삼호를 운전수 김현택(金顯宅)(二七)이가운전하고 종로삼정목 칠십이번지 압흘지날지음 봉익정(鳳翼町)팔십일번지 리성실(李成實)(六)이 가전차길을건느려다가치여서 중상을 입엇는데 즉시의전(醫專)병원에입원하야치료를 가하얏스나 명에는 관계업스나 전치삼개월간의 중상이라한다

한아이를두고 두사내가爭奪

【平南支社發】어머니 자신조차 그아들이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어린아이를사이에두고 그부권(父權)을 다투는 두사나이――평양부 인흥리(仁興里)김원섭(金元燮)이라는사람이 선교서(船橋署)에 내아들을 차저주소서하고 요사이에 호소를하여왓는데 그의주장에의하면 그는재작년봄 백오십원의 선례금으로 차고 이채관(李采觀)(二)과결혼을하여 곳대망의아들을보고 유특(大勝)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평화하게 사러왓는데 지난사월 중순에이르러 원흥을엇고 평양성내에올갓다가 『이하다린』에서

病든男便살리고저 허벅지를베혀!

【平山】병상의남편을위하야 자기의 『허벅지』살을도려내어 남편의 병을구원한 열녀의 미담이잇다 평산군 세곡면(細谷面)의 『임씨(林氏)』는 자기남편 ... (田武京)씨의 안해 리시...가 남편의 병이 중하여 어떤 약도 효험이업슴을 보고 입산제...

高文"파쓰"못해도 人材本位로採用

서름밧든無資格官吏에朗報

官吏任用의官制改定을따라

총독부에서는 내각(內閣)의방침에 순응하야 관리의 임용에 대한제반편제를 개정하기로 되어 산택심의실 사무관(山澤審議室事務官)이 일전에 그개정안을 휴대하고 동경에가서 방금편게당국과 협의절충중이다 그내용인즉 종래국소범우의조선인 특별임용령(特別任用令)을 제한외에는 내선인을 물론하고 대개고등문관(高文)시험에 통과한 소위유자격자에한하야 고등관을 임명하야왓스나 편제개정에의하야 금후로는 소위자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인재와 능률을 본위로하야 아모리 고등문관시 험에 통과되어 유자격자라 하드래도 인재와능률이 별수업는 사람이면 고등관으로 승진을안 시키는 동시에 아모리 학벌이업 고 도자격이 업다하드래도 인재와 능률만 상당하면 고등관에속 속승진시켜서 과거비상히 서름 을바든학벌과 자격이업는관리편 들의 길을따리주기로된것이다 그리고 도조선인관리의 특별임용령에대하야도 근래고등문편시험합격자 즉수재의 유자격자가 속출하므로 현재각도지사를 비롯하야 각관청의 노후고등관을 숙자정리한후부터는고문『파쓰』한 유자격자를 중심으로고등관에 임명할방침이엇스나 내각의방침이 시세에 적응하도록 인재본위의 제도를 채용함에따라 조선인고등관도 자격의 유무에 구애되지안는것은 물론이오 종래의 특별임용령의 범위를일층 확대강화하야 오는칠월부터는총독부이하 각소속편서에 상당한 다수의 조선인고등관을 증원할 터이라한다

아마拳鬪豫選

計體量은今日

本社會議室에서施行

全國朝鮮의 拳鬪家를 網羅한 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 本社後援의 比律賓選手招聘親善朝鮮代表選手大會는 明十四日과十五日兩日午後三時부터 安國町徽文高等普通學校特設링에서 擧行할터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大會에 出場할選手의計體量은 府內朝鮮拳鬪俱樂部에서 行할豫定이든바 事情에依하야 今十三日午後六時正刻부터 太平通本社會議室에서 行하기로되엿다 그러고 參加申請도 今十三日午後三時까지임으로 迅速申請하야주기바란다고한다

全朝鮮蹴球初日

劈頭부터激戰이룬

京城齒專追後參戰

【平南支社電話】조발적인까속에 개전된 관서체육회주최와 본사 평남지사후원의 제십사회 전조선축구대회제일일전은 작십이일정 오부터 대평(大平)피복다대목 공조합(木工組合)의 실업단제일 회전부터열린바 벽두부터 연장전을연하는 백병전을 전개케하야 만장관중으로하여금 극도로 열광케하엿다 이리하야 제일일 에는 대평(大平)일철(日鐵)구전 (久田) 성흥(成興) 고려(高麗)

大平3 木工1

【前半1…1、後半0…0延0…0、2…0】

【第一次戰】大平被服對木工組合戰은 同日正午부터 車在鎬(主)朴仁權、安洙德(線)三氏審判아래 木工킥어프로開戰된바 兩軍實力伯仲하야 一大激戰을演하더니 一對一同點으로 延長戰에도리가 大平軍一擧에二點을너허優勝을 자랑하던 木工軍을누르고 決勝하엿다

久田抽籤勝

【前0…0、後0…0、延0…0】

【第二次戰】兵友蹴球團對久田고무工業所戰은 同午後一時五十五分부터 康基舜(主)姜鼎益、金成煥(線)三氏審判아래 久田킥어프로開始한바 兵友團優勢를 보이어 그리고 전반(前半)에 모두를 어기다 그리고 경성치과의전(齒專)이 추후참가케되어 평양의전파 세부관(숭의전)이 착오로에 치전은 결승전에서 대전(對戰)케 되어 더욱 대회의 흥미를 돋우게되 엿다

에 이어 久田軍前에서만 混戰을거듭하더니 久田의 GK金昌益君의 妙防으로 득점이루지못하고 延長戰에 드러갓스나 亦是得點업시 大會規定에依하야 抽籤으로 勝負를 決하엿는데 久田軍이 幸運의勝을얻엇다

日鐵1 平鐵0

【前半1…0 後半0…0】

【第三次戰】鐵道局對日鐵對平壤鐵道戰은 同午後三時四十五分부터 韓龍浩(主)朱大德、崔永鎭(線)三氏審判아래 日鐵킥어프로 開戰되엿다 平鐵의멤버ー로活躍하던名將이끼인日鐵軍의 攻勢가자못猛烈하엿스나 어예平壤軍바지안코 꿋꿋내奮戰하다가 遺恨의一點으로 물러섯다

成興2 三信0

【前1…0、後1…0】

【第四次戰】成川 成興鑛山對三信商會戰은 同午後五時부터 姜鼎益(主) 車在鎬 康基舜(線)三氏審判아래 成興先攻으로 開始된바 最初 三信身 優勢를 보이엇스나 成興身에 追及猛烈하야 二對零으로 成興身이 得勝하엿다

高麗3 老童0

【前1…0、後2…0】

【第五次戰】延禧OB對高麗蹴球團戰은 同午後六時二十五分부터 朴永哲(主)朱大德、安洙德(線)三氏審判下에 OB身 킥오프로開始된바 兩身最初에는 攻防으로만 進行되드니 十五分부터 高麗身 통패스로 OB身의 陣地를 混亂하야 前半戰에 一對零 後半戰에는 더욱 高麗軍活動敏捷하야 結局 三對零으로 『리ー드』하야 高麗身이 決勝하엿다

實業庭球第五日

專賣・總府勝 府廳과鐵道各敗

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五日의府廳對專賣戰(朝銀코ー트)과 總督府對鐵道戰(殖銀코ー트)은十二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擧行된바專賣이 全勝의 府廳軍을 總督府軍이 鐵道軍을各各이겻다

大和町큰길에서 高壓線大量竊取

銅制限令이나흔犯罪!

지난 칠일새벽 시내대화정(大和町)일정목 이십삼번지압길에서 경성전기회사의 고압전선(高壓線)일백팔십미돌을 어떤자가끊처가버렷스므로 소관본정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다 구리사용제한령(銅使用制限令)이 발포된이래 이러한 구리쇠 절취사건이 빈발하더이므로 금후이방면의 범죄예방에 경찰은 머리를알코잇다

고서 그모친과함께 어디론지 종적을 감추어버렷다고한다 요지음 그비를찾는사람이 그시체를 파내가지고 이사실을 주재소에고발케되야 처음이사실이발로되여 목하 살인급사체유기죄명으로 그를 수배중에잇다

精神病든己妻 殺害暗葬

六朔後에發露

【咸南支社發】정신병든 안해를 도끼로 때려죽이고 자기바테다가 암장(暗葬)한사건――갑산군운흥면심포리(甲山郡雲興面深浦里)한재련(韓在連)(三七)은 작년시월부터 길에서룡사장(吉惠線)에와서 취역하고잇섯는데 그해십일월부터 그안해 어씨(李氏)(?)가 병으로 정신이상이생겻다 노동생활로서 생활에조롭던 한재련은 이성신병자의안해를 몹시 괴롭게 역여서 필경은 그를 죽여업새버릴마음을 먹게되어 십일월이십일밤날이 아지못하게 도끼로 이씨의머리를까겨 죽여버린뒤 그집압 바테다가 가만히 무더버리

曆

▲五月十三日(金曜)陰四月十四日

▲干支乙巳

▲日出五時二十七分 ▲日入十九時卅三分 ▲日南中十二時二十九分四十四秒

▲晝間十四時六分

▲月出十八時三十九分

▲月入四時二十九分

▲滿潮(仁川)四時二十五分과 十六時四十五分

총딱

쇠잘라먹는 서람이 잇다더니 귀잘라가친고가 잇섯다 ▲무슨원한인가 변태적인 작난인가 세월이변한다해도 범죄가 이러케까지 날카로워 진다고야 ▲녹음의오월에 삼수갑산엔 눈이와다 북만 는 령하십이도 겨울이되도라와다 ▲세월이 어째왓다갓다 하는모양인가▲가짜검사에 가짜순사가 나오더니 이번엔 가짜빗쟁이가 또나오다 ▲밋저야 본전이죠만아는 모양인가

大釘嚥下新記錄

다섯치되는못을 세차레에 사십여개

처음엔 목병고치려 나종엔자살목적

醫學上珍奇한研究資料提供

傷魂青年의 悲慘한最後

때는 철기근시대라 하야 쓰레기속에 뭇처잇는 양철한조각까지라도 파내여쓰라는 이때에 목이 빗두러젓다는 이유로 약혼해두엇던 처녀에게서 파혼의 선고를밧고 이것을 곳치기위하야 전후세번째나 사십여개의길다란 대못을 먹어서 철기근시대의 국민경제를무시한이단자(異端者)가잇다 시내관동정(館洞町)에사는김복규(金福圭)(二一)란사나히는 지금으로부터 오년전 어느인삼회사(人蔘會社)에 취직하고잇섯는데 파도의신경쇠약이잇슨뒤 이상하게도 목이왼편으로 기우러지기시작하며 무거운것을 들면 목이아퍼서 견듸지못하게 되엿다 그리하야 유명하다는 침술(鍼術)과 한의에게 보엿스나 도모지 낫지안허서 애를쓰고도 라디니던차에 설상가상으로 미리부터 약혼해두엇던 처녀로부터 목이 빗두러젓다는 이유로 파혼의선고를 바덧다 이리하야 자기의 병에대한 고민은 날로 더해가고잇슬때 어떤한줄가가그 병은 혈관이막혀서 그러니 바늘을먹으면 나흘게라고 하얏다 그말을 신용한 김복규는 목이 대단히빗두러젓스니 바늘보다는 굵은 못을먹으면 속효가잇스리라고 재작년삼월 이십팔일부터 다섯치나되는 대못을 하로에한개식 삼키기시작하야 열엿세만에 열여섯개를 먹엇스나 배가 아프고 몸이쇠약해지며 대변만이 검어지고 아무효과를 보지 못하얏다 그리하야 너무나 복통이 심하므로 그해사월십일에 부민병원에 입원하고 개복수술을하야 못을빼낸다음 목도수술 하야 꼿처주엇스나 뼈가 조금 빗두러 젓슴으로 완전히 낫지 안헛섯다 그뒤에 목이 완전히 낫지안흔것을 번민하던 나머지 그해십이월경에 또다시 못다섯개를먹고 부민병원을 차저왓스므로 수술에의하야 전부뽑어내 고 완전히치료해주엇더니 지금으로부터 약한달전에 다시못 무개를삼켯다하면서 집안사람이 다리고 병원을차저왓다 요번에 먹은것은 목이아무리하야도 완전히낫지안흠으로 그만죽어버리 기위하야 먹고죽을일을 기다리 엿스나 너무지독스럽게 배가아 프니 곳처달라고하얏다 이때에 는 벌서못을먹은지가 수십일이 넘어서 차차왓고 위가쇠약해 저서 복막염을 병발하얏스므로 이명친전에 죽어버리엿다 의학상의 문헌에는 지금까지 에 한자반짜리못다섯개를 먹고 죽엇다는 사실은잇스나 전후세 번에궁하야 다섯치나되는 긴못을 사십여개나먹은사람은 이번이 세계의의학상 처음기록이라하야 부민병원외과 성주영(成周榮)씨가 근근의학회에 발표하리라고 사진과경과기타의 재료를 수집해노코 준비중이다

(사진은 렌트겐으로밧은 사망자의식도로본과 속에박힌대못)

志願兵訓練所 採用試驗日割

최초의 조선인지원병을 양성하는 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입소전형시험은 기보한바와가티 어십일부터 동이십오일까지 사이에 각도에서 각각 시행되는데 시험기일이 결정된것은 다음과 가트며 총독부와 및 군부에서도 편계편이입장하리라고한다

京畿 二十四、二十五日 忠北 二十一、二十二日 忠南 二十、二十一日 全北 二十一日 黃海 二十二日 平南 二十、二十一日 平北 二十、二十一日 江原 二十二、二十三日 咸南 二十、二十一日

不貞妻에게霜及

自己도飮毒―生命危篤

【春川電話同盟】춘천읍 대화정(春川郡大和町)이정목에 사는 어리이을룡(李乙龍)(三二)는 이번에그 동리 안씨(安氏)(二〇)와 결혼하엿는데 최근에 이르러 안씨가 고목신이기전 정부가 잇섯던것이 드러나게되어 그때문에 부부싸움이 그칠사이가 업섯던바 십이일에는 큰차옥이 버러진끄테 흥분한 이을룡은 안씨를 그릇 리 산으로 끌고가서 식칼을침(?) 러 죽게시키고 자기는 자살할 목적으로 양잿물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지나가던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부근병원에 떼메여다가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仁川商工協會總會

【仁川】인천 상공협회(仁川商工協會)에서는 지난십일오후팔시에 역원회를열고 회장 주명기(朱命基)씨의 인병사임과 동간 박남칠(朴南七)씨의 사임에 대하야 수리하기로하고 이어서 야시계설(夜市開設)의준비와 임시총회를오는십륙일에개최하기로 결의하엿는데임시총회의의안은 회장보선밋간부보선의건과사보엽고기타 사항이라한다

今日의運動

▲庭球=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六日…遞信局對殖産銀行(朝銀코ー트)總督府對商業銀行(殖銀코ー트)午後四時五十分開始(觀覽無料)

實業庭球第五日現在

順位		殖銀	府廳	遞信	商銀	總府	鐵道	專賣	【比率】
1	殖銀	:	△		○				1・000
3	府廳	△	:	△		○	●		0・500
1	遞信		△	:		○	○		1・000
3	商銀	●			:			○	0・500
6	總府		●	●		:	○		0・333
7	鐵道		●		●	:	●		0・000
5	專賣	○	●		○	:			0・666

【備考】○印은勝、●印은敗、△印은日沒中止의表임

【府廳】―【總督】 【鐵道】

第一라운드 所上 瀬河 下朝 金夏 金松 小雲 崔景 宋相 嚴東 盧昌 4…3 ○黃杉(任完淳)×…4…2 ○長渡(秋山)…0…4 ○坂(渡邊)…4…1 ×崔(福崗)…4…1 ×井上

第二라운드 下河 金朝 崔云 宋哲 3…4 ×○黃杉(坤本) 3…4 ×…0…4 ○長渡(渡邊)

第三라운드 嚴東 盧昌斗律 4…3 ○杉黃(坤本)

第四라운드 嚴東 盧昌斗律 4…2 ○長渡(邊沼)

【府廳】―【專賣】勝

第一라운드 野村 海野 金石崇 李鳳基 張南星 李慶得 宋貞鋪 山口 4…0 ×李鳳基(李基用) 0…4 ○金在寬 4…0 ×梁世俊 1…4 ○金泳錫 ○全野 … 棄 ×房玉 ×矢野 李正善 朴用世 朴寅

第二라운드 瀨岩 金種 4…0 … 第二運 金石基 李鳳崇 宋貞鋪 山口 0…4 ○李基用 1…4 ○全泳俊 房金錫

第三라운드 瀨戶 金種岩 4…2 ×李基用 李鳳基

第四라운드 瀨戶 金種岩 3…4 ○全泳俊 房金錫

卸レギハ

朝鮮向人絹綿布ハイパー 一二等格安品

新開業하시는분은特別御指導합니다

在庫品年中豊富

大阪市南區松屋町七十八番地

高橋清商店

電話東 四一二三番 振替大阪四三〇一九番

取引銀行 住友銀行島の内支店 安田銀行島の內支店 三和銀行松屋町支店

御來店歡迎 商品進呈

肺患

必讀 診斷常識

…당신은…

●저녁수저해가지는안는가

○약간기침과 담이나오지는 안는가

●三十七度二三分의熱이每日午後부터 夕陽에걸쳐서 나지나안는가

○盜汗과 不眠이 繼續되지나안는가

●어쩐지 목이무겁고 胃腸도나뿌고 食慾不進의 날이繼續되고 動悸가나고 숨이갑브고 억개가결리고 가슴이 아프지나안는가

…이것은肺病初期의症狀입니다…

●기침이 만어지고 담이 만코 때로血線이 석기지나안는가

○貧血과 衰弱이 더하고 顔色이나뻐지지나안엇는가

●每日三十八度가차운 熱이나지나안는가

○頭痛、不眠、喀血、泄瀉、便秘、胸痛가든 苦痛이업는가

…이것은肺病의第二期症狀입니다…

그러나 恨歎마시요 正當한療法으로

肺病은!

…治療된다……

…正當한療法…

肺알른이는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소 冊보내시요』라記入한 葉書를 左記의寺로 보내시요 釋迦님의 金言을 基礎로해서正當한 治法을가르킨 ″肺病治療의原理″와 寺傳秘方公開″光明のあなたへ″의 二冊을

無料送呈 다니함

빨리이 가르침으로 肺病 肋膜炎을 征服하라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天野

天野テントツ商會

大阪市西淀川區三本松 電話五六三・四六〇番 振替大阪二〇〇七

東京市日本橋區濱町

時代에適應한 最新強壯劑

特히一般虛弱 神身過勞 榮養障碍、神經衰弱、腺病質 肺結核、肋膜炎、性的減退、缺落症、病後恢復期、食慾不振에特効

食慾을增進하며神經及身體細胞의活力을昂進함

用法 一回四―八cc兒一日三回服用

美味芳佳 服用容易

五〇〇cc 四、五〇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製造發賣元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平壤西門通

フェロトン (페로톤)

百日咳에 コデス (코데스)

謝禮

平壤商品陳列窓裝飾競技大會 一等賞

平壤府巡營里 東亞商會

眼科

院長 金廣業

大明医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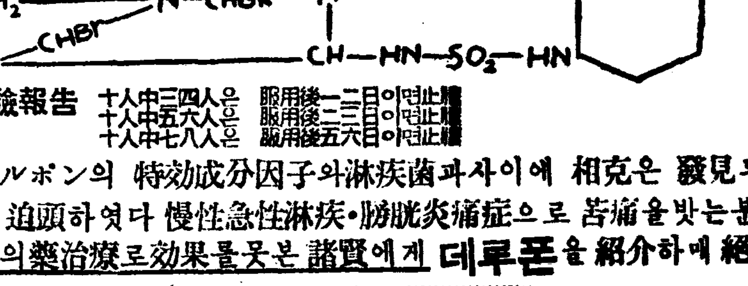
平壤竹典里 (和信東側) 電話一三八五番

醫學界新貢獻!

新發見 治淋劑 驚異的 Therupon

現代人은 淋疾을 難治의病으로 認證하고 特히 慢性患者에잇서서는 治療를게을니하는 缺陷이잇다 또한 從來治淋劑도 許多하엿스나 淋疾患者는 醫藥界를 嘲弄하는듯 增加하는 趨勢이엿섯다 그러나 化學의 偉大한 힘은 最後의 勝利로써 燦爛이 빗나니 十數年의歲月과 巨大한 研究費로 專心研究한結果 本劑淋菌殺菌의特効成分은 完成되엿스며 多數한 醫學界權威者의臨床實驗結果는 十中九人은 完治되엿다는 驚異的報告엿스니 從來注射藥治療法・內服藥等은 絶對追從을 許치안는 新化學劑이다

데루폰의 成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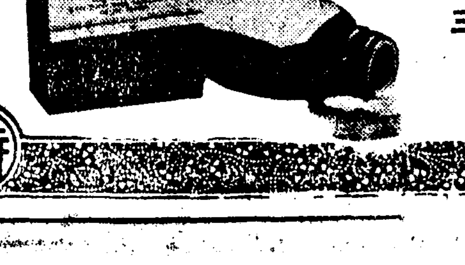


醫學者 臨床實驗報告

十人中三四人은 服用後一二日이면止膿
十人中五六人은 服用後二三日이면止膿
十人中七八人은 服用後五六日이면止膿

特告

本劑テルポン의 特効成分因子와淋疾菌과사이에 相克은 發見되엿스니 淋疾의 終焉은 迫頭하엿다 慢性急性淋疾・膀胱炎痛症으로 苦痛을밧는분 特히 慢性淋疾로從來의藥治療로效果를못본 諸賢에게 데루폰을 紹介하며 絶對주저치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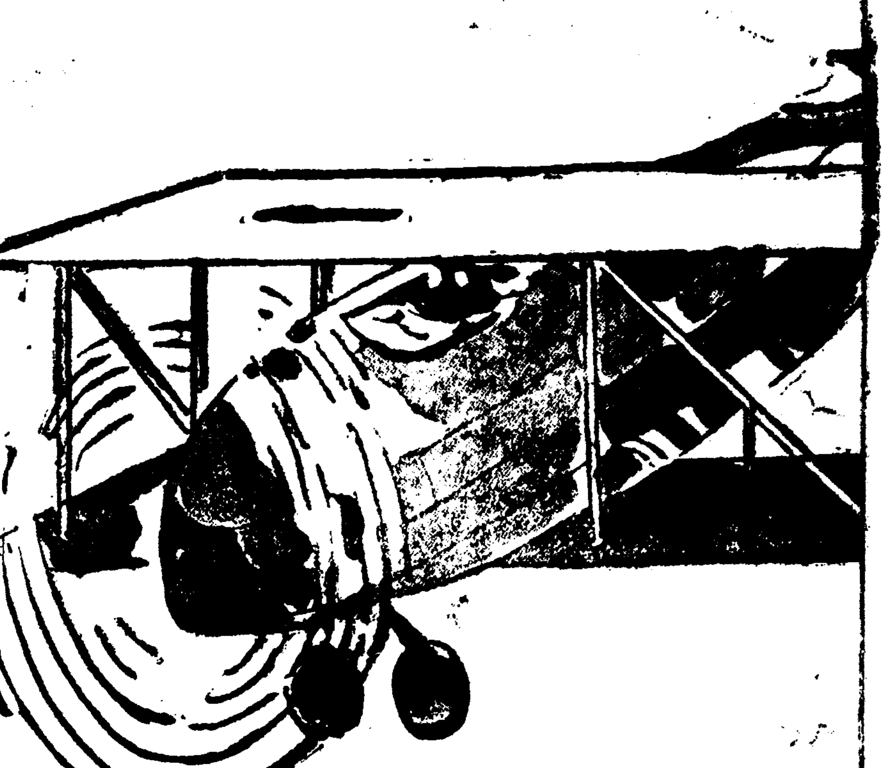
告! 個人注文은 振替口座 또는 葉書로 二十四錠入 ￥5・50

テルポン

三省社藥品部

京城府壽町七七 電話光化門(3)3389 振替京城25372

治 淋 特 效



인천부도산정二四번지 신태의씨내외와 그어린애기남메

眞價[illegible]

살을 베혀내어는 것[illegible] 생을 불고하고 대영단으로 이런특전을 여러분께 올리오니 동가면 홍상이라는대 가른값이면 신성당 약이라고하는것보다 효력제일 절대신용잇는 고명한 전문약을쓰시와 병고치시고 조흔구경하시는 이런기회를 일치마시오 약품 이원이상사시면 무료로 동양극장과 명치좌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이자ー는 특별한 효력선전으로 반액에드리오니 이번 기회를 꼭일치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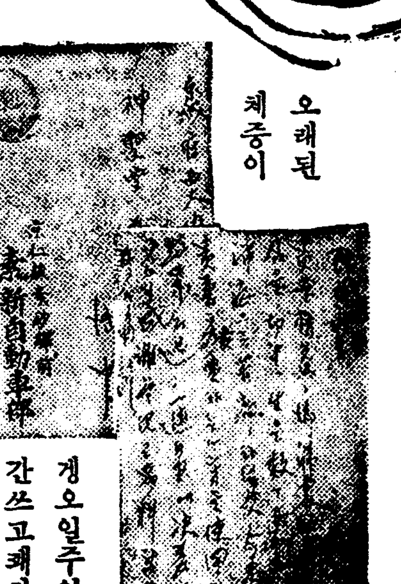
이상사시면 동양극장 명치좌입장권을 한장 무료로 드립니다

二、보혈강장약가이자ー 십원짜리한제를 특별히반액 오원에드리고 입장권두장을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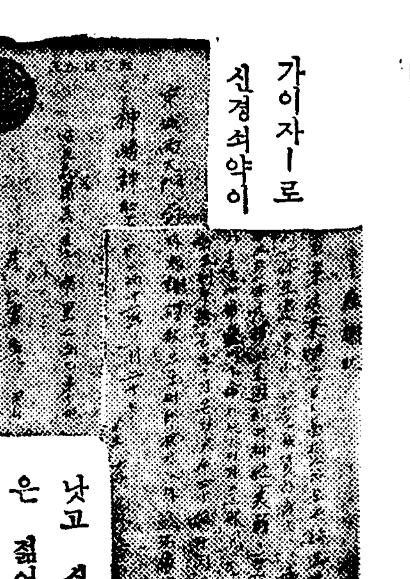
超弩級强壯補陽劑

보혈강장강정약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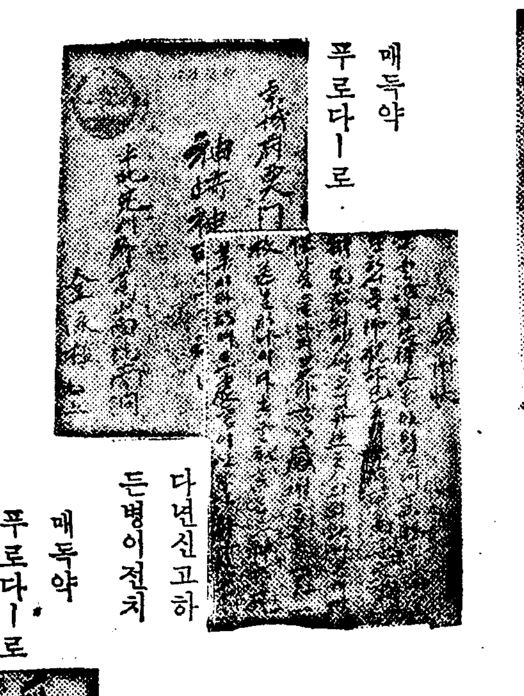
약가 중용 이십원 보통용 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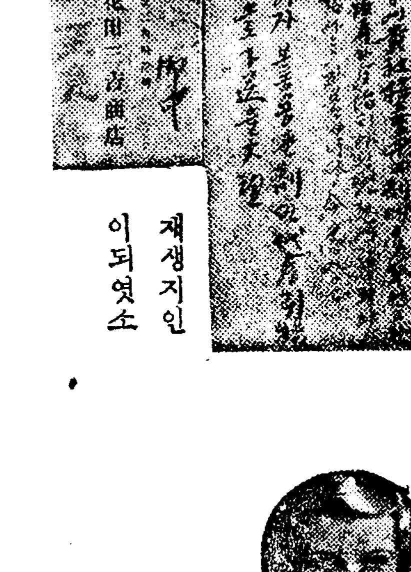
오래된 체증이 게오일주일간쓰고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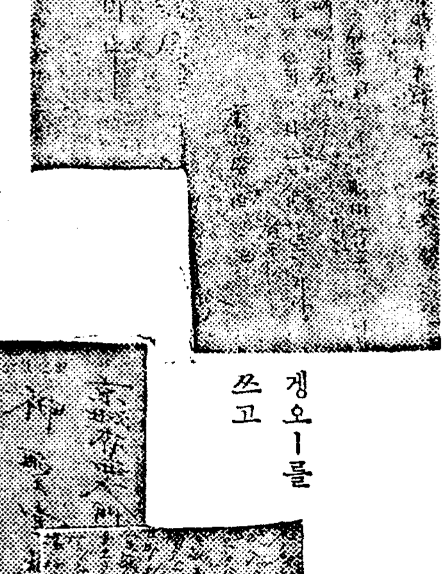
가이자ー로 신경쇠약이 낫고 설년은 젊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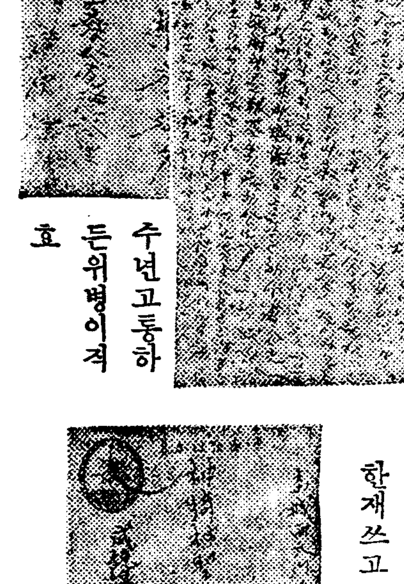
매독약 푸로다ー로 다년신고하든병이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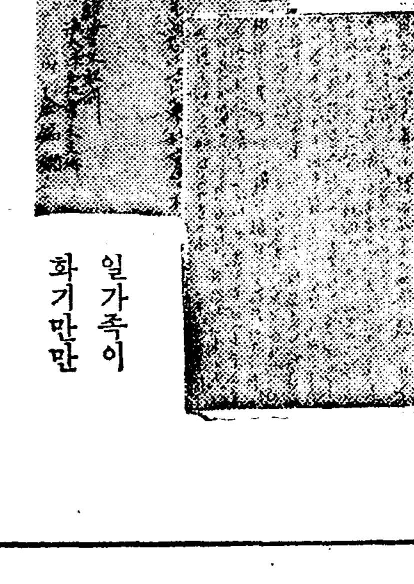
매독약 푸로다ー로 재생지인이되엿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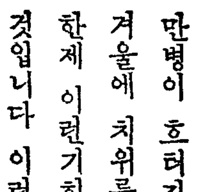
푸로다ー는 무어라비할데업는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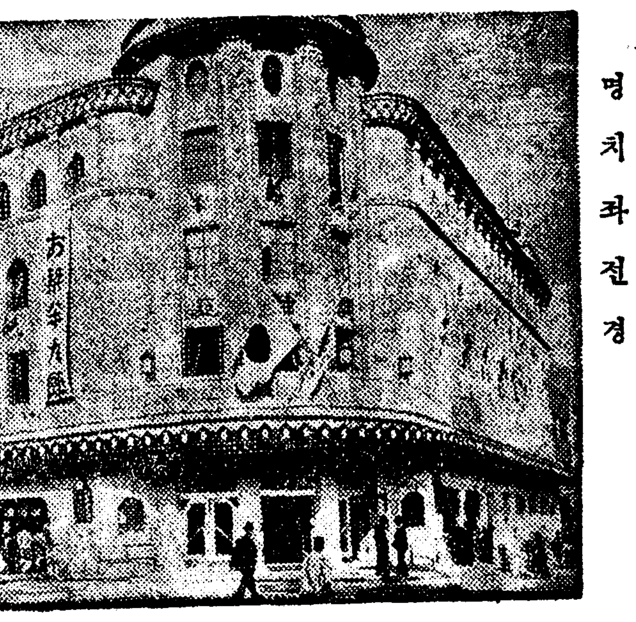
게오ー를 쓰고 수년고통하든위병이직효



가이자ー 한재쓰고 일가족이 화기만만



약업계의 혁명기는왓다 가이자ー의 진짜(眞價)를 알게되엿다 동서양 정분제로 우리체질에 잘마저 청춘의양기가 영구히 계속되고 음식구미가나고 피부가윤택하야지고 얼골이 동탕하야지고 만병이 흐터지고 신체저항력이 강화하야 여름에 더운줄 모르고 겨울에 치위를모르는 선약이다 이제껏 허위의약에 속은분은 꼭 한제 이런기회에 시험하야보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이런기회가 다시업습니다



명치좌전경

大京城代表的 歡樂의殿堂

明治座

超豪華푸로大提供中

東洋劇場으로

青春座未曾有의大熱演中

가이자ー 한제 사시는분은 이번기한만 반액에드리고 입장권두장 무료로 드리오 또 무슨약이든지 이원이상사시면 입장권한장 무료로드리오 이런 조흔기회를 꼭 일치마시고 곳주문하시오

人間病苦海를 버서나서 健康益壽하시오 青春의享樂을마음껏누리시오 心身共榮의 참된幸福을어드시오

一擧三得의幸運

다년간 애호하여주신 은덕을보답하며 더욱고명한 약의 진가眞價를 선전하기위하야 전무후무한 대특전대영단으로 경향각지 복약가 제위를우대초대하오니 다시업는 이 기회를 부대 일치마시고 조흔구경하시고 조흔약쓰서서무병장자가되시기바랍니다

기한 오월말일이 넘으면 절대로 안합니다

至五月末日

가이자ー의 약효를 실지로 널리 알어주시기위하야 희생을 불고하고 대영단으로선전 발매합니다 일만포한하고 드립니다 기한전이라도 일만포가 너무면 할수업습니다

直輸入株式會社

서대문턱제일큰헌벽돌집

京城西大門入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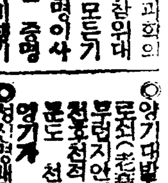
電話 光化門 三三四番 三四九九番 一〇七七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私書函 西大門第二號 光化門第四五號

小賣部特設 親切酬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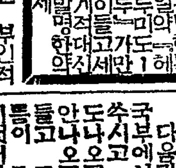
보음 보양 젊어지는약 가이자ー KAIZER 가제일



현대과학의 힘은찬위대하다모든기계문명이사실을 증명하다비행기 라디오가튼것도 옛날에는꿈에도못생각한것이 지금은 삼척동자라도 예사로알게되엿다더욱 약학(藥學)화학(化學)의발달은 가속도(加速度)로나날이진보하야 최근에는 만고에다시업는 신기한선약을 발명하게되엿다 즉「가이자ー」는 최신의 화약화상득한 그비방성분이 세게최고전문박사들의 경탄하고자랑하는 정부재인데 실지로약을 써본분들의 놀랄만한 효력에 감격하야 천하에다시업는갱소년절머지는 선약이라는평판이불같이퍼짐니다 약효가속하고 확실하므로 복약하는대로 곳혈분이늘고 살이찌고 골격을 부활견고히하고 신체모든세포를다시갱생시키며온갓잔병을 물리처서 음양쌍보하야 다시절머지는약이다 ◎체질강화(强化) 사회적으로 유명하게된리유 가이자ー의특장(特長) 천품이부대만하고 허(虛)한체질은 근골이 강화하야 저항력(抵抗力)이 강하야지므로여름에더운줄모르고 겨울에치운줄 안타게된다 몸이수척한분은 혈분이늘고살이부대하야지는 보약대왕이다

◎양기대발 로쇠(老衰)하신분도 청춘부럽지안케 기운어나고선천후천적으로 양기부실한분도 천연적으로 청춘의 양기가 대발한다 ◎정신명쾌(明快) 정신이맑지못하고 신경쇠약하고 항상터시업고기운이업는분은 정신이쾌하야지고 기분이조코몸이가든하고 발발한기운이난다 ◎허약한부인도 이약을쓰시면음양쌍보하고 냉한기운을업새고 무자하든분도수태한다 ◎성、호루몬(性ホルモン)생명내장 호루몬을 분비(分泌)하는 성질이 우리체질에 잘맛고 구비하므로 가장유익한작용에 영기가 영구히 계속되고 음식소화가 잘되고 구미가나고 피부가윤택하야지고 얼골이 동탕하야지는 생명원소(生命元素)이므로 수명장수하야 인생향낙을 마음껏누릴수잇다 다음가튼증세에 곳쓰시오 원기부족 양기부족 방사불능 음위(陰萎) 조루 속히되는분 쾌감업는분 신경쇠약 로쇠(老衰) 부인허약、화류병후쇠약남녀 노소 강장제로다ー조습니다 (약가) 중용이십원 보통십원 경성서대문신기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조제절대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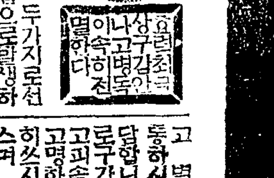
림질 대하증냉병엔 구로베루 KUROBER 이제일



세게에 유명한 일미약도가 루ー세만1에독서 히틀고가 게적대신 발명한약

남녀 만성림질 부인적백대하증 남녀냉병 오좀소태 월경고르지못한데 하혈등으로 별치료를 다ー하야보고 별별약을써도무효하야 돈만버리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시고 제일먼저대신발명된 구로벨 구로베루를쓰시오 구로베루가터신속한약은 또다시업다는 것은효험을보신분들의 말삼이오며 확실한 자신을엇고 장담하오니 곳쓰시오 다음가튼증세의분은쓰시오 국부에서고름이나오고아프고 수시고 재리고 아리고 흑피도나오고붓고 소변이자지고 힘이안나오고조곰씩나오고 힘이들고 그러다가며칠안되면고통이 조곰씩나오고안아푸다 이것이어릴 만성이다 이만성은고치기어렵다만성일수록약을비싼것을 써야한다 (약가) 완고악성에 십오원 만성키다 제증에 구원 전염된지 며칠된 보통증세에 오원 지방송료선금 십오전 대금인환삽십오전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당일로비밀히 보내드립니다 병이좀심하면십오원짜리가조습니다 (효력절대보증)

매독엔 푸로다ー PROTER 가제일



효력최고 상구감안 나고병독 이속히전 멸하다

매독은선천후천 두가지로선종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는 이세상제일무섭고 지독한 병인대대개사루바루산주사면대하며야겨우 일시적으로돌리지나 완치가안되고다시도지게된다 류백류호주사로 불완전한점을 업새기위하야주사가아니고 먹는약으로단기간에 효력을 볼수잇는 매독약 푸로다ー(PROTER)를 대발명하엿다 내복하야 약기운이 피로드러가서괴속에잇는균을 씨도업시 업새버리는 특장이엇다보통병과다르니 지체말고 별별치료로도안나어고통하시는분은 꼭쓰시요 장담합니다 이푸로다ー는절대로구감안나고 몸에해가안되고괴속에잇는 균을 죽이는고명한약이오니안심하시고속히쓰시요 남녀국부가 허렁스며 가려운데눈이희미하고 팔다리가 쑤시고혹이생기고 머리가빠지고 여기저기종기가나고 또창병 감창코가허러드러가는테등에신효합니다 약갑 완고용 십오원중증용 십원 경증용칠원 시험용오원약은환약이오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병이좀심하면십오원자리가낫습니다 (조제절대보증) 주사는의숙한의사가하다가도 약이새서팔이썩어잘너버려야하고 편의협한대다 수십대 마저도 절대로안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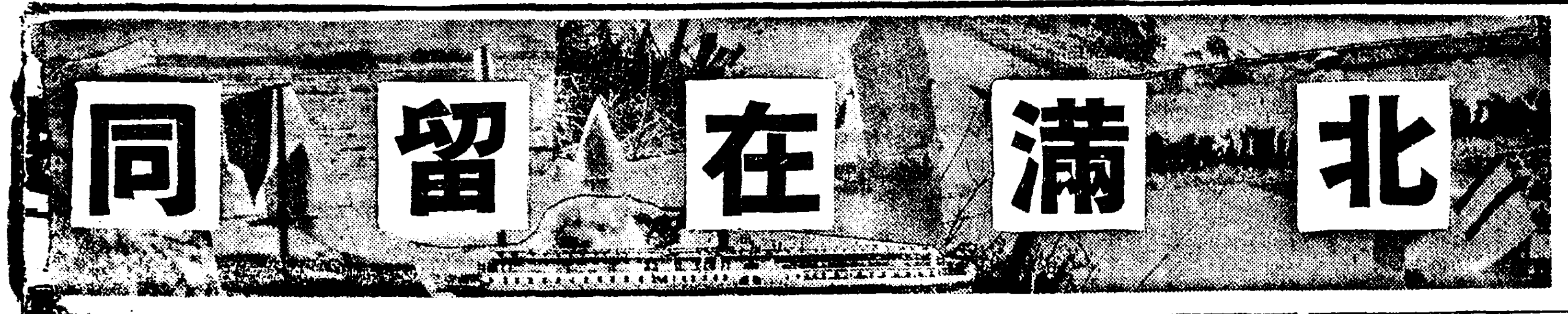
책임조제니 약을써보아 만일마음대로안되면어떠한책임이든지 접니다

資本金百萬圓 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府西大門區電停留場前(제일큰벽오양관)

ケンオー王 本舗總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光三三四番三四九九番一〇七七 振替京城四九五〇



地理歷史上에約束된 不可分離의朝滿關係

滿洲事變以後、庶政이一新됨을따라 移住朝鮮人은日加月增

朝鮮人의 滿洲에잇서서의 交涉은 그地理的環境과歷史的關係와 自然的因緣에因하야 距今二千五百餘年前부터發端되엿든것을 알수잇스나 우리는 이것을渺茫하고 近世初期부터그交涉의 情形한一瞥을엿보기로한다 大淸帝國의 創業을 너어新羅滿洲 國의 發祥地를직히기 위하야他民族의 入植을禁하는當時에 朝鮮朝廷은 鎖國政策에서 이와장단을마추어 朝鮮人의滿洲渡出은一時中斷되엿 "越江罪"로嚴罰하기로되니 朝鮮人의滿洲渡出은一時中斷되엿 든것이다그러나明治初年頃에北朝鮮에서突然凶作 大饑饉은政 策의强化를遂行지못하게되엿스니그로死線에노여진饑民은牢固 에서 一步渡하야 血路를滿洲에求하지안할수업서禁犯渡滿이大 量하게圖出하게되든 饑饉을因하야自然渡滿禁止令도 撤廢되여 近代朝鮮人의大陸移住의 설마리는풀리고 中斷된滿洲에對한朝鮮 人의交涉은進行되엿이다 肥沃한沃野를차저貧困農民과勞働者의 渡滿이 時節의候鳥처럼 逐年增加하는一方 日韓合併後滿洲移 住者가 大量으로激增하야百萬同胞의在滿移住는 이때부터 約 된"코스"를거친것이다 그러나舊東北軍閥政權時代의暴政은朝鮮

移民에對한歧族的排斥과壓迫을恣行하엿고一方不絶한匪賊은因하 야 無數한生命財産은 匪賊의掠奪되여그들의生活은 一大苦難에不 安과恐怖를免치못하엿던 生涯를支持하는동안에 在滿朝鮮人의暗澹한 幕이엿니어 移住者의漂泊과放浪한生活은廣大無邊한거친 荒野 에서展開되엿다 이것이 一時朝鮮內地同胞의入滿에 絶大한障 害가되엿이다 그러나 歷史는轉換하야 東亞의黎明인滿洲事變 이勃發하나 이것을機縱으로東亞一角에서 우렁찬소리로五 族協和、王道國家의 聖業이創設되매 滿洲國은 新秩序로改革 되어 順天安民의 庶政이確立되니 朝鮮民族의 大陸移動은急 速度로 進展하야 五萬以上의移住者가 年年增加하고잇이다 日滿一體、滿鮮의 一如精神에서 日滿不可分의 關係는더욱强 化되는이모멘트에 在滿朝鮮人의精神的躍進과 産業的躍進은今 後本格的으로 展開될것이 틀님업다 昨年十月治外法權의 全撤廢로써 그들의 在滿同胞의權利와 義務는確立確定되엿스 니 滿洲는 朝鮮人의 滿洲로서그意義와 使命이큰것을 여기 에一言하야둔다

統計에公館別이라함은 左記와 가든地域을 內包한것(縣市)

◇扶餘=扶餘縣의一部
◇海拉爾=海拉爾、額爾克納右翼旗、額爾克納左翼旗、索倫旗、陳巴爾虎旗
◇滿洲里=新巴爾虎左翼旗、新巴爾虎右翼旗
◇齊齊哈爾=齊齊哈爾、龍江、布特哈旗、泰來縣、札賚特旗、景星縣、大賚縣、林甸縣、莫達瓦旗、嫩江、[illegible]、訥河縣、克東縣、拜泉縣、明水縣、富裕縣、甘南縣、依安、通北縣
◇黑河=璦琿縣、呼瑪縣、遜克縣、奇克縣、烏雲縣、佛山縣
◇白城子=洮安縣、安廣縣、鎭東縣、開通縣、瞻楡縣、洮南縣、突泉縣、醴泉旗
◇哈爾濱=哈爾濱、雙城縣、阿城縣、賓縣、扶餘縣의一部、五常縣、珠河縣、葦河縣、延壽縣、寧安縣、勃利縣、通河縣、方正縣、依蘭縣、樺川縣、富錦縣、同江縣、撫遠縣、饒河縣、綏濱縣、蘿北縣、寶淸縣、湯原縣、巴彦縣、呼蘭縣、肇東縣、蘭西縣、安達縣、青岡縣、綏化縣、慶城縣、鐵驪縣、望奎縣、海倫縣、綏稜縣、木蘭縣、東興縣
◇綏芬河=東寧縣、穆稜縣、密山縣、虎林縣

人口

住居가늘移轉되고 遷退에面出하여 充分치못하야 確實한數字는 엇을수업스나 昭和十一年六月現在各領事館公館別로 北滿人口의分布狀況을보면 總戶數二萬八千九百四十二戶 十二萬千一百七十八人이니 細別은다음과가다

公館名	戶數	人口數
扶餘	二七戶	八六人
海拉爾	五六	一〇八
滿洲里	三五	八一
齊齊哈爾	一、一七七	四、一一四
黑河	三三	八七
白城子	五〇五	一、六二三
哈爾濱	三、一二五	[illegible]
綏芬河	[illegible]	[illegible]
計	二八、九四二	一二一、一七八

農業

滿洲의穀倉松花江沿岸을中心한 北滿의米作狀況은 水田面積三萬二千三[illegible]

敎育

[illegible] 五百圓으로 多數가 補助를받고 잇스며 治外法權撤廢後는 校名도 普通學校에서 國民學校로改稱하게되엿는데 以上에서 幼稚園은 單三個所뿐이니 以下各公館別로 細分하면如左하다

公館名	學校數	生徒數	一年經費
	校	人	圓
扶餘	一	三	[illegible]
滿洲里	一	[illegible]	[illegible]
齊齊哈爾	七	[illegible]	[illegible]
黑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城子	九	[illegible]	[illegible]
哈爾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綏芬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幼稚園			
哈爾濱	三	[illegible]	[illegible]

金融

主로 農民에게 農資金을 貸付하고 會員間에 金融融通을 目的삼은金融會가 在滿朝鮮人의 庶民金融機關이되여잇는데 北滿에는 겨우 三歲公館管轄地에 十三個所 金融會가 金融의 動脈이되여잇다 總資本金二十五萬二千圓總貸付額九十六萬二千七百五十八圓으로 一萬七千四百十人의 會員이 그것을 利用하고잇다

公館名	資本金	貸付金	會員數
	圓	圓	人
齊齊哈爾 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哈爾濱 1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綏芬河 2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1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務契

農民으로 組織되어 金融會의 農資融通을圖體的으로 要請하기爲하야全滿에 農務契의 數爻가적지안라自由移民으로 單獨農資는絶對不可能한關係上農務契의 發展은今後더욱活潑히展開될것으로 보이는데 北滿에잇서서의 農務契數爻와 契員數의詳別은다음과가다

公館名	農務契數	農務契員數
扶餘	八個所	二八二人
海拉爾	一	一三
齊齊哈爾	二	五四七
白城子	七	[illegible]
哈爾濱	[illegible]	[illegible]
綏芬河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一望無際의

各界重鎭의面面

同胞指導에專念 東興의師表 尹友石氏

氏는平南宣川出生으로 當年四十二歲의壯年篤志名望家이다 距今十八年前에 勝志를품고渡滿하야南滿各地를 流離하기五個星霜間에도着心할곳을 定치못하고昭和元年에처음東興縣에 발거름을멈추게되자 氏는專心으로 農民들의 焦燥한生活에 改善策을講究도는 實踐하야 一般農民들의生活은 漸次로 潤澤하여지고잇슬때 滿洲事變勃發과 同時에農民들은 散散히 離散하야 버린後도氏는 百折不屈한 立志로써 束手로 殘留한赤貧者들을 扶持하야가며 明敏한手腕과 奔投한活動으로 昭和八年에 民會를創設하고 住民들의 渴望에서 民會長으로 推薦되야 不撤晝夜로指導에힘을 不惜하엿든 結果現在東興이라면 北滿의穀倉地이고 優秀農村의指稱을맛으리만치更生의曙光이 비추어잇슴은 全혀氏의犧牲的努力을代言한다 昨年治外法權撤廢로하야 滿洲國에移讓한後 氏는또在籍 [illegible] 다시住民들의 公薦에依하야 當地國民學校의校長으로 選任되어잇다

즉 普通商業學校를마추고 三年間朝鮮商業銀行에서 勤務하다가 大正九年東京에건너가 中央大學을卒業하고 그後言論機關에도 緣故者로잇서고 서울고무商會에關係를두엇다가昭和八年에 朝鮮人金融會理事로任命되엿서고 同十年에 金融聯合會를 促進식히면서 副理事로 多年間活躍하다가 昭和十二年六月에 綏化金融會理事로 就任하야現在까지 在北滿朝鮮人金融機關을運轉하고잇다 氏는徹頭徹尾理財家의 典型的人物이다 氏의거러온學籍과 經歷이 그의先天的素質을빗나게하얏거니와 北滿에잇서서 氏처럼專門的으로 理財의經路를거러온人士는 아마드물것이다 氏의豊富한經驗에依하야 滿州特殊性을 調和시키는 그솜씨가 크게注目할價値가잇슬것이다 (寫眞은 李公雨氏)

北滿開拓의先驅 李善柱氏

氏는出生地平壤에서 大規模의百貨店三光商會를 經營하며 飛躍的發展을보아오든中 大勢의趨移를一契機로하야 北滿處女地開拓의大志를품고 昭和二年에鄕關을떠나 처음哈爾濱에 定着하고商工業各界를網羅하야 規模한活動을繼續하야오든 昭和八年에戰亂의亂民과 松花江의 三十年來初有의大洪水로因하야 同胞들의 배주린아우聲이 北滿大地를뒤치고잇슬때 이에氏는切實히느긴바잇서 大衆[illegible]에이李조차 未知 爲하야 農場開設當年부터 海北米廠을 開設하엿다 同米廠은平南江西郡岐陽里出生인 氏의生姪李益福君이 鎭南浦商工學校를 昭和九年에 卒業하고 同米廠의 責任擔當者로써 그事業을 運營하고잇는데 君은當年二十四才의 堅實한 靑年으로 그의 業績은 斷然燦爛한 빗을내세고잇다 (寫眞은 李善柱氏와 李益福君)

貧窮을理解하는 金台說氏

氏는 平北龍川郡楊西面新城里出生으로 今年四十歲의 壯年實業家다 元來家貧하야 남다른悲哀와痛憤을 느낀氏는 困窮한舞臺로進出하야 보다더生活의 安定과向上을圖하고잇든바 距今二十一年前鬪氣滿滿한 二十靑年으로서 삶을기다리는 滿蒙開拓에留意하야 意味잇는 微笑를띄고 [illegible] 세고잇다 (寫眞은 金台說氏)

內强外柔의性格 金永濟氏

二十四歲의鬪氣充滿한 靑年實業家다 距今十七年前父母와더부러 南滿奉天省興京縣에 移住하야少年時節을 그곳에서보내고二十歲에慶城縣에移住하야 慶城商業을 開始하야오고布木雜貨의商業을 開始하야朝鮮人으로同縣商界의「리-더」을삼고잇다 [illegible] 修學하다가 마침내 歡喜와榮譽의넘치는 首席을 차지하고卒業을 畢하게되니 氏는 自身이거 [illegible]

工業에까지 [illegible] 그의언젠손에만意義가잇지안라 氏의빗나는眼光은 意志力과聰明그리고貧窮을理解하는說明詞가아닐가 氏의舞臺의展開는 今後가嘱望된다 (寫眞은 金台說氏)

模範한實業青年 崔慶錫君

滿東興으로 渡田을決定한後 再出發의 勇氣를어더 十年一日가티 大自然과싸와온것은 氏의今日을 約束한것이 아닐수업다 異城風霜二十餘年 氏의 어마즈듬은 過去辛苦의生活을 表象하는것이니 今日의大成이엇지 偶然이될수잇스랴 東鮮精米所와 東鮮商店等을 開業하야 農業外商工業에까지 [illegible]

君은 平南江西出生으로 當年二十九歲의 實厚謙遜한 實業靑年이다 昭和元年 渡滿同時 農村開發에着眼하야 延壽縣柳河鄕으로移住한後 春風秋雨十餘星霜을 애오라지 開墾事業과農村振興에 一念不忘으로努力한것은 君의今日의 經濟的地盤과 社會的地位가立證한다 三百餘農民을結合시켜 農務契를組織하고 金融의圓滑한調達과 農業技術의向上을圖하야 自身이直接農民이되고 또指導的立場에서 理事의任務를完全充實히 實踐하는데서 農民이며企業家인 面貌가具存한 將來有望한人物이다 在滿한各地農村에 君과가튼理想實踐力을가추고 謙遜한人格의所有者가 漸漸出現하기를 바라는것이다

勇敢한女丈夫 金垢弘女史

氏는 平北昌城郡出生으로今年四十歲의 壯年實業家다 距今十七年前에渡滿하야 거치른北滿荒野草原을헤치면서 寧安縣、延壽縣等地에서 土地開墾에 主力하엿는데 豪昧한土著民에게 억울한虐待와가진迫害를으로지忍辱속에서 鬪爭이 지내오다가 於焉五六年을經過하얏는데北滿의 穀倉地로破破氏는 昭和二年同縣에 斷然永住地를 決定하고 移住한後새로운 出發로 農農에 勤勉하는 一方稻米業을 開業하야 現在는 他人의 追從을 不許하는 王座를 占하고잇서 民會副會長에公薦되엿도 잇는데 內强外柔의氏의 性格은 多年辛苦에서 어든 後天的體驗이비저낸修養일것이다 (寫眞은金永濟氏)

겨누고 大陸[illegible] 弘女史는 當年四十四歲의 大傑이다 濱北線交通便利와 物資出入이頻繁한綏化縣城內에서 旅館을經營한지不過一年에 北滿觀署團과商工業者는勿論農民等의 누구나 이곳에서 宿泊을아니하 거처는 北滿曠野에 婦女子의 몸으로 勇敢히 男子와 억개를 [illegible]

血路開拓十餘次 金完碩氏

[illegible] 猛進又猛進으로現在商業界의 牛耳를잡고잇다

性格이매우沈着하고 思索的이니 『타입』의反面에豪放한大好男兒的氣分도가지고잇서同縣事業界의一種惑星으로指稱하는人物이다 氏는일즉이 新京商業에 學籍을두고 未來의實業家로서의 實夢을 自悅한적이잇느니 京城培材門에 修學한바記憶을 남긴채 京城醫專에서 執刀見習도한적이잇섯스나 이것이모두 靑春의 [illegible]

熱과 愛의結晶이며 民會와學校의 創設者요 安邦河農村八個部落二百餘戶 八百農民大衆의最高指導者인氏는 慶城縣農村의振興의 絶對한有功者가 틀림업스나 民會解消되기까지重職에잇섯다 (寫眞은 崔友山氏)

理論보다도實踐 柳永俊氏

氏는 全北長水郡溪北面出生으로 當年二十七歲의 意志堅强한 實業靑年이다 일즉全北全州公立農業學校를 拔群의 才로 卒業하고 氏는 平北朔州郡水豊面出生으로 當年四十一歲의 溫厚謙讓한 開拓者다 距今十八年前 渡滿하야 恒仁縣、興京縣을거처 北滿慶城縣으로移住하기는 十一年前이다 水草를헤치며 血路를開拓하기十餘次 捐鞭林農場은 氏의 心血의結晶일것이다 金農地二百五十餘垧은 모두氏自身이象成한것으로 氏의 過去는 文字그대로 『苦行力作』인것이다 (寫眞은 金完碩氏)

立志傳中의人物 崔友山氏

氏는 北滿在住同胞中에서도立志編中에들 當年三十四歲의 元氣旺盛한 靑年活動家다 距今二十餘年前 코흘리는 나어린幼時代에 父母의손에끌리고등에업피어 故土를 등지고 낫서른異域滿洲通化縣에 올마와 赤貧한 農家에서 父母의農事를 거들면서 獨學과 苦學으로 臨江縣私立東明小學校를 優等으로卒業하고 니어萬苦와싸우면서 重雪의功을 닥거柳河縣縣立中學을卒業하고 도 괴맷치속에서 六年동안 [illegible] 는데 年少한君으로는뜻내지 明敏한頭腦를가지고 溫雅한品貫에 恣와德이잇서 君의前途에는빗나는 萬路가 [illegible]

나는光彩가잇을것으로 期待된다 (寫眞은 許 [illegible] 君)

商工界로의 躍進은氏의 熱誠와 豪放에서 放射하는것이다 珠河와 延壽의生命線인交通網에君臨하는 合資會社協和自働車部는氏의經理와 就任과同時에前途의飛躍的發展을 豫約하는것이다 (寫眞은 吳泰根氏)

熱과힘의所有者 吳泰根氏

理的"플랜"을 把握하고 新興都市佳木斯에서 氏以上의 活躍은업다 氏는元氣旺盛한 三十七歲의 靑年으로 企業家的 緻密한頭腦에 勇往邁進의 熱과力의 所有者이다 昭和十一年 共同出資로서 依蘭縣廳의 斡旋에依하야土地二千餘垧을買收하고 僑胥驛前에 會寧農場을 大規模로創設한만큼 氏의手腕과 力量은他人의追從을 不許한다 氏는單純한利潤을 目的하는 普通企業家에서나아가 어디까지 未來의朝鮮農民의 樂土建設을 目標삼고 나가는 理想과 實踐을 具備한 建設者다 農村과 都市經濟의合理的圓滑化乃至向上을 爲하야佳木斯에 大規模의 木材業과精米業을計劃하고잇느니만치佳木斯同胞經濟界의"바로메-터"요指針이 되어잇서 氏의明日은 太陽과가티 빗날것으로豫約된다 (寫眞은 吳泰根氏)

延壽開拓功勞者 移住同胞恩人 朴世彬氏

北滿唯一의 富饒農村은 延壽가될것은 自他가共認하지만 우리朴世彬氏야말로 延壽開拓의功勞者이며 北滿移住同胞의 恩人이될것은 誇張이아니다 氏는 寬明하고 慈愛하며 剛直하고勇敢한天禀이잇스니 일즉이 高尙한雄志를품고 本籍地 江西郡甑山面五和里에서 慨然히 渡滿하야 奉天에서 萬精療院을 開業하고 疾苦에우는 數업는 貧窮同胞를爲하야 執刀와施藥에 餘念이업더니 距今十五年前 다시생각한바잇서 延壽에移住할때는 漠漠한曠野에 人煙이稀疏할때다 손으로 세일수잇는程度의 우리同胞가 從年增加하매 氏는먼저初等敎育機關의創設의 必要를느끼어 私立普成學校(現在延壽國民學校)를設立하고 一方自作農設定을爲하야 貧窮農民을 百方으로 指導斡旋하고 滿人地主로부터 土地租得에 成功하니 曠野는 一望無際의 沃野로 一變하자 年年復年富農이 續出하야 이제는北滿第一位의 富裕한農村으로 飛躍하얏서 於是乎人心은 厚柔하야 外地樂土를 建設하게된것이다 이것이 氏의 過去十五年間의 犧牲的努力의 代價가 아닐수업다 (寫眞은 朴世彬氏)

壯年商工業家 全明奎氏

氏는 慶北靑島出生으로波瀾만흔流浪의길을거러온 壯年商工業家다 弱冠時節에大阪、京都、神戶等各地로 六個星霜을漂泊하는동안 商工業에關한不少한經驗을어더 大正十二年에鄕里에도라와 商業에從事하든中 昭和二年年다시바잇서 北滿에渡滿하야 聚源和雪崗、二道河子、密蜂站等各地로轉居하면서 水田開發에勞

移住農民의慈父 柳昌燮氏

氏는 京畿道坡州郡內面出生으로 일즉水原農林學校에서노닐다가中途退學한後 京城習成中學校에入學하야 優良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그後近十年間學務에 敎育에 獻身하얏는데 偶然히뜻한바잇서 昭和二年渡滿하야 春蠶頂子에移住하야 農村啓發과 育英事業에 投身하고 專心專力移住同胞의生活安定乃至向上에盡力하얏는데 昭和十二年다시北滿으로 住居를옴겨 湖南營에서 開墾事業과農民指導에獻身한것으로衆望에依하야 今年六月民會長으로公薦되엿다 氏는 前年生을 農村啓設과 農村敎育事業에 一貫히한지 農民에게 [illegible]

快活한活動家 羅基珍氏

氏는일즉本籍地에서 密陽農蠶學校를마치고 奉天에서東亞勸業에勤務하면서北滿移民計劃에 研究와[illegible]을만히나타내인 活動家로 十一歲의 快活明敏한 氏는奉天에서 慶城縣에드러와多年懇案하든農村啓設의 具體的計劃을 企圖하고 먼저指導體인 民會理事로 就任하야 敎育、產業、其他農村建設에 目的 [illegible] 氏가經營하는土地만도 八十餘晌에達하야 中年實業家로써象成한 그의압날에는 期待되는曙光이빗나고잇다 (寫眞은金元植氏)

六百同胞安住處 大澤農場의昨今 李永春氏功勞不少

通河縣大澤農場은 松花江下流通河街頭에서 約十九町地點에잇는 通河縣東門과 接近한 文字그대로의 門前沃畓이다 東으로 二道河子와 漢人村落이 壁下로 나려다보이고 西便에는 農場의 二百餘町步를 經營하는 [illegible] 生產界이되여 三百餘戶의 農家 아름드는 通河와 南北에 [illegible] 計하야 一般農民들의 活氣잇는 生活은 來日의 至福을 豫約하는 一變함의 經濟에도 비 同時에 子弟들의 敎育에도 用意가 北滿의村에서 第一人者 어잇스며 北滿農村의 前途는 가되여 世間의 指導까 밧게된 全에 現在 一般大衆民 李永春氏의 明日을 [illegible] 努力의 結晶인

花江과 北便에 大王山이 伏在하야잇는 同農場에는 現在同胞戶數百三十戶에 人口六百이잇서 共同生活에서 勤儉力行과 精神互助、衆合生活의 擴充、養子敎育等으로 耕地面積 三百三十七晌을 自作農으로 經營하

것이다 氏는 咸州 東郡洞出生으로 當年三十六歲壯年으로 寬川에 中學에 다니다가 形便에 依하야 中途에서 그만두고 일즉이 朝鮮內地에서 多年間 敎育界에 勤務하다가 昭和七年에 入滿하야 卽時로 哈爾濱에서도 相當한 手腕家의 하나로 「떠시」를 經營하다

收容에 汲汲하여든것이 今日의 美果를 보게된것이라고하며 同今도 千餘晌의 未墾地에는 五年間을 計劃하고 自作農으로 全部 創設完了시키리라는 氏의 遠大한 抱負에는 앞날이 더욱 期待되어잇다 (寫眞은 그農場의 打作狀況)

昭和十年가을 同農場에 着收하게되어 實地를 踏査하여던結果 一時는 兵士들의 警固 짓가되어 어디에 우리의 安息처가 되어지리라는것은 一種之恐怖에 不過하엿든것이나 同胞農民들의 秉士를 擴張하야서는 멋을의 生死를 超越한 勇敢히 奮鬪하야

前途實로洋洋한 李丙稷君

君은 京城出生으로 今年二十六歲의 俊才이다 일즉培材學校에 學籍을두고 勤實히 練學하다가 家族의 移鄕으로 不得已中途에서 退學하고 처음奉天省相城縣에 移住하야 縣立師範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卽時로 滿洲人小學校敎員으로 採用케되엿스나 배움에주린것을 참지못한君은 드디어 上海에뜻을품고 神戶에건너가 印度人의貿易商에서 小店員으로까지 勤勞하면서 夜學에 熱中하야 뜻을 세우고 昭和八年度에 安東縣鴨綠江水上警察吏로 服務하든中 滿洲事變卽後齊齊哈爾日本派遣軍의 通譯을비롯하야 現在滿洲國陸軍文官에 合格되야 慶城縣에서 勇躍하는 氏의前途는 實로洋洋하다 (寫眞은 李丙稷君)

力하다가 事變直後 哈爾濱으로 移住하야 軍部通譯으로 勤務하든中 慶城縣縣民政選에 從事하야 治安工作에 功勞를 세웟든 一方合名會社를 創設하야 東昇貞 精米所를 經營하고잇는데 氏는 去年生에서 어드 [illegible] 如意하게 發展하야 人과 顧客等에 [illegible] 잇다 (寫眞은 全明奎氏)

前途有望한青年 楊振燮君

君은 平南平原郡永柔面出生으로 當年二十八歲의 勤儉謙讓한 前途有望한 靑年農業家다 幼時로 漢學에 心醉하야 農村少年다운 純直謙遜한 敎養과 그先天的 品性에서 "農者는天下之大本"이란 精神에서 從是一貫한 生活과 主義를 가저 鄕里에 老幼는 君의 前途를 매우 期待하얏다고하는데 昭和九年 農業北滿에 赴走하야 君의理想을 實現코저 慶城縣에서 赤手空拳으로 小作으로 着手하얏는데 堅實不動의 信念에서 心血의 苦勞力作은 隣近人士의 絶對의 信望을 어더 이제는 自作의 農士로 完備되며 農村啓設의 先頭에나서서 人後에 떠러짐이업스니 前日小寒村이 繁盛한 都市農村으로된것도 君의 熱과 力이 靑年다운 氣槪와 아울러 躍進한 結果라 볼수잇다

朝鮮人과北滿洲

滔滔洋洋히 흐르는 松花江은 그滿城기름진 沃野千里 浴하고잇다 어떤지어 熱帶의 거룩한乳房 파도가는 悉得을 北滿全般에 빼출고잇스니現代最高水의 科學的力量으로動員하 [illegible] 다고한다 天惠의 恩澤에 이러한土地에서 天 [illegible] 同時에 日滿交經濟부렵網에 [illegible]

理想農村建設한 敏腕家 金夏永氏

氏는昭和十一年以後 農民의自力에依한 理想農場建設에 邁進하야現在 同農場最高指導者며經營者다 二百餘垧이 既墾되어六十戶農戶가 그喜悅속가티 崇仰하고잇스며 學校도 設立하야 氏는 校長까지 兼任하고잇다 (寫眞은 玉明善氏)

絶讚밧는名醫 朴元得氏

氏는平北定州出生으로 일즉이 五山中學에 [illegible] 渡滿한後 먼저 哈爾濱에서 [illegible] 開業한 [illegible]

謹告

今般北滿紹介版發行에 際하야 北滿各地有志로서 紹對한支持와愛讀을 不惜하시고物心兩面으로 協力하야주신데對하야 甚深한謝意를表하오며 資料供給其他多大한便宜를주신 關係當局에 감사하오며 特히友誼로手苦한同志高源峰氏에게 謝禮합니다

朝鮮日報哈爾濱支局長 白一星 白

祝 哈爾濱紹介版發行

哈爾濱醫院 院長 金龍洙 本籍 平南 [illegible] 住所 濱江省阿城縣中央大街

李雲錫 本籍 平北朔州郡外南面太平洞 住所 濱江省延壽縣公安街 渡滿十六年

阿城國民學校 濱江省阿城縣城裡

玉泉國民學校 濱江省玉泉

延壽國民學校 濱江省延壽縣城裡

寧安國民優級學校 牡丹江省寧安縣城裡

新安鎭國民優級學校 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林口國民學校 三江省勃利縣林口

勃利國民學校 三江省勃利縣城裡

湖南營國民學校 三江省依蘭縣湖南營

佳木斯國民優級學校 三江省佳木斯

依蘭國民學校 三江省依蘭縣城裡

通河國民學校 三江省通河縣城裡

濃河鎭國民學校 三江省濃河縣濃河鎭

新甸國民學校 濱江省賓縣新甸

東興國民學校 濱江省東興縣城裡

新民鎭國民學校 濱江省東興縣新民鎭

慶城國民優級學校 濱江省慶城縣城裡

鐵驪國民學校 濱江省鐵驪縣城裡

泰來國民學校 平齊線泰來縣城裡

訥河國民學校 龍江省訥河縣城裡

齊齊哈爾國民優級學校

白城子國民學校 龍江省洮安縣城裡

洮南縣立國民優級學校

國民優級學校 濱北線綏化安全農村

三道鎭國民學校 龍江省拜泉縣三道鎭

天德國民學校 濱北線海北天德

海北鎭國民優級學校 濱北線海北鎭

善牧國民學校 濱江省海北鎭

九井子國民學校 濱北線海北鎭交

申洛範 (一名錫石) 本籍 全南 [illegible] 住所 濱江省延壽縣同慶街 渡滿二十九年

李炳燦 本籍 平南安州郡安州面文峰里 住所 濱江省延壽縣公安街 渡滿二十年

白永達 (俗名日成) 本籍 慶北英陽郡首比面新岩里 住所 濱江省延壽縣吉盛街 渡滿二十年

張允亨 本籍 黃海道長淵郡薪花面納山里 住所 濱江省延壽縣吉盛街 渡滿十二年

申泰錫 申泰鎭 本籍 平北慈城郡三豐面新興里 住所 濱江省延壽縣公安街 渡滿二十九年

朴基範 本籍 平北義州郡加山面九장洞 住所 濱江省延壽縣天順街 渡滿二十三年

主任 李正洛 農產物交易所分場 本籍 慶北 [illegible] 住所 濱江省延壽縣 [illegible]

日海商會 禹斗日 禹在健 本籍 江原道蔚珍郡平海面三達里 住所 牡丹江省海林正陽街

文義聲 本籍 平北朔州郡外南面德嶝洞 住所 牡丹江省海林市場街二四號

崔承烈 農務股長 本籍 江原道蔚珍郡蔚珍面邑南里 住所 濱江省阿城縣公署

韓尙鍾 本籍 咸北明川郡 [illegible] 住所 濱江省延壽縣柳河鄕

池源植 渡滿二十年

金海山 住所 濱江省延壽縣柳河鄕

徐正頎 (渡滿二十年)

姜淳景 農務股長 渡滿二十年

白必鉉

承處龍 渡滿十九年

朴正浩

孫秀容

李如椿

崔景業 渡滿十九年

李炳吉

金東鉉 渡滿十三年

金秉穆 渡滿二十六年

金來權 渡滿十二年

白日燁 評議員 (渡滿廿年)

金秉泰 農務股長 評議員

金春植

任讚珪 渡滿十二年

李贊文 區長 渡滿十六年

金鉉

姜明元 評議員 渡滿二十八年

白炳贊 朝鮮精米所

趙鳳均 本籍 平北定州郡新安面松亭洞 住所 濱江省延壽縣興隆鎭

李基汶 朝鮮精米所 渡滿二十年

李聖植 渡滿十五年

胞活躍相 (其一)

望 (河北農場所見)

副業

◇海拉爾 (單位圓) (館別表)

	生産額	價額	平均單價
牛乳	一、三〇〇布度	一三〇	〇.一〇
草刈	一〇、〇〇〇布度	一、八〇〇	〇.一八
◇齊齊哈爾			
鷄	八、〇〇〇斤	一、八五〇圓	—
◇白城子			
鷄	一六、〇〇〇斤	二〇〇圓	每百斤
◇哈爾濱			
鷄	三三、四四三斤	八、九三三圓	—
臥	六、四五〇枚	一、六八〇圓	—
鷄	三八、五〇〇枚	二、七五〇圓	—
鷄卵	一〇、〇〇〇枚	二〇圓	—
蜂蜜	二、二〇〇斤	二、二〇〇圓	—
毛皮	五〇〇枚	二、五〇〇圓	—
苷	二、七〇〇斤	一、二〇〇圓	—
◇綏芬河			
苷	一、五〇〇斤	一、二〇〇圓	〇.八〇圓
豚	六〇頭	一、八〇〇圓	三〇圓
鷄	五〇〇羽	二五〇圓	〇.五〇圓
鷄卵	一〇、〇〇〇個	二〇〇圓	〇.〇二圓
蜂蜜	一、〇〇〇斤	四〇〇圓	〇.四〇圓

百七十七町步에 年收穫八十萬三百四十五石으로 將來水田可耕面積은 十八萬五百九十六町步이데 이것을 各領事館管轄區域(以下同)으로 細別하면 左와 如하다 (昭和十一年六月末現在 以下同)

公館名	水田作付面積	收穫高	將來水田可耕面積
扶餘	五五	八〇〇	一、〇〇〇
齊齊哈爾	一、四四三	四四、九二〇	六、〇〇〇
黑河	一八〇	五、六〇〇	五〇〇
白城子	一、九八五	三五、六三一	一、〇〇〇
哈爾濱	三、〇九〇	五七、一四四	一〇六、三〇〇
綏芬河	六、五四一	一三八、八八四	六六、四九〇
計	一三、二七七	八〇〇、三四五	一八〇、五九六

附記‖(北滿各地統計를 省別又는 縣別로함이 可할것이나 便利上 松花江을 中心하야 各地日本領事館公館別로 調査함이 簡潔하기로 以下比例에依한것을 一言함)

教育

北滿朝鮮人初等教育狀況을보건대 學校數百四十九校 生徒數一萬二千六百七人 一個年經費二十九萬二千

宗教

北滿朝鮮人의 敎狀況을보면 基督敎가 斷然首位로 敎會堂二十六個所 信徒四千百四十五名에 達하고잇서 他宗敎는 이에따르지못하고잇스니 그詳細한細別은以下와갓다

公館名	寺院敎會堂數	信徒數
海拉爾	基督敎 一	一三人
白城子	基督敎 三	一三五
哈爾濱	基督敎 一九	二、二七一
	天道敎 一	三五〇
	其他 三	五三七
綏芬河	基督敎 三	一、八二七
	其他 五	四八五

醫療機關

北滿 中心地이며 國際都市인 哈爾濱市를除外하고 農村北滿의朝鮮人醫療機關은 매우慘憺하야 小規模의病院이 겨우六十六個所뿐이고 囑託醫는十六名인바 細別하면

公館名	病院數	囑託醫數
扶餘	二	—
海拉爾	一	—
齊齊哈爾	一	一
白城子	四	二
哈爾濱	四四	一一
綏芬河	一四	二
計	六六	一六

紹介에際하야 白一星

日은 [illegible]數수엇는 千古의處女地가 新興大滿洲國을 [illegible]하야여 여장것을 [illegible]하는것이나 大[illegible]開拓者의 [illegible]하고 東亞의 新樂土가 [illegible]잇다 眞一 이것이 開國이 完成이안될수업다 우리는 北滿[illegible]成되어 [illegible]野가 一朝 法權이 完全撤廢되어 滿洲國에 沃野로 形成되는때는 一民의一分子로서의 그들의 [illegible]優餘의民衆을 배울리할수잇 史的使命을 크게 [illegible]하는 [illegible]가비리마지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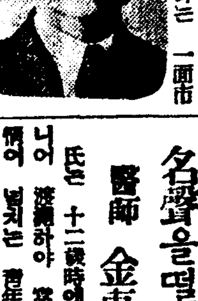
農興公司의活躍 陣容이堂堂한 五十萬圓의大큰체룬

처음東[illegible]에 발자취를 적엇다 新開地의 開拓者인 氏는 언센질다리로 新作十餘年에온갓險路를 거러왓스나 所期의 目的實現에는여러가지 外的條件이 不利한끼닭에 다시 [illegible]考條에 北논者업스리만큼 그[illegible]의서―베스의方法 飮食의 [illegible]味는自然營業의 [illegible]을 招來하야 北滿名物의 存在로써 女史의奇拔한 手腕을엿볼수잇다 (寫眞은 金[illegible]女史)

新義州青年實業家 金益鎭氏는일즉東京早大를마치고 本籍地에서 土地事業을經營해오다가 昭和十年에큰抱負와 大企業慾을안고 新京에와서 精米業을單獨經營하얏는데 滿洲農業의企業化는 現代州出生으로 東京高等獸醫學校出身朴[illegible]秀氏(三〇)가 事務로就任하야綏化에金泰商會本店을두고 오로지精米工場에專力하며 農城同商會支店에는 貿易業務에從事케하야 綏化營業主任金英鎭氏가(三三)

内에 海北洋行을 開設하고 綢緞布木、日用雜貨、海産物貿易、穀物委託等을 經營하고 잇는데 沈着하고 勤儉하야 理論보다實際로 實踐하는 그實行性은 본바들만하다 (寫眞은 [illegible]永俊氏)

고 一時 [illegible]公署에 就職하얏다가 三年前에 新京、哈爾濱等을 徘徊하다가 海倫縣海北鎭에 農業을 營爲하고 即時海北鎭에 三十餘輌의 農耕을 시작하는 一面市



思索的事業家 蔡廷錫 氏

氏의本籍地는 咸北慶源郡이나 出生地는 滿洲國新京이다 當年三十三歲의 元氣旺盛한事業家이

典型的理財家 李公雨氏

[illegible]까지 努力을다하고 [illegible]는데 氏는가사어는 苦血의結晶인過去의功勞는보다더 偉大하야 東興社會는 勿論外界人士들까지도 그業蹟을崇仰하고잇다 【寫眞은 尹友石氏】

氏는富川郡富川面出生으로 當年四十三歲의 老練한理財家다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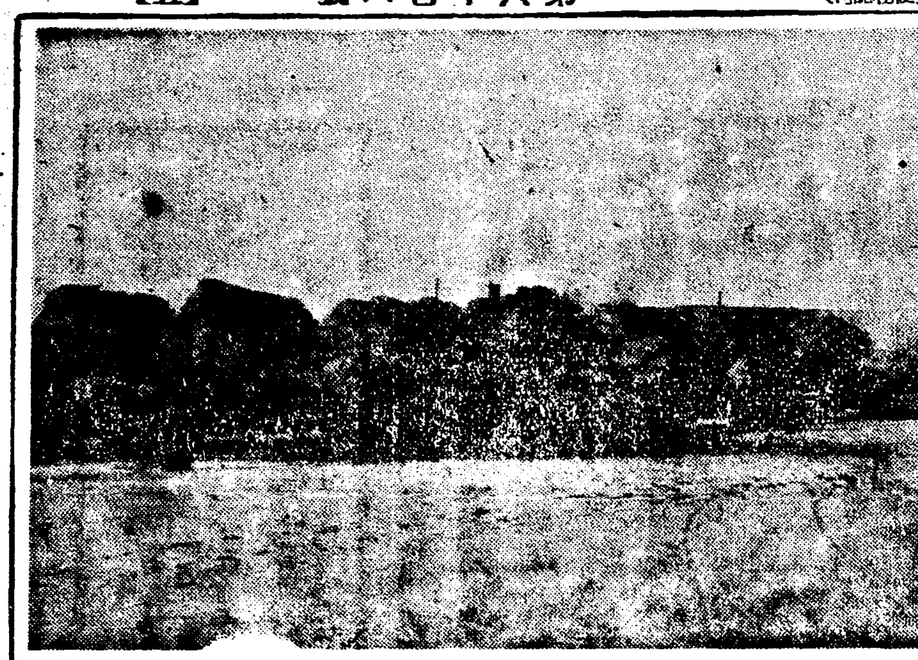
資金을投資하고 各處에서 風霜 民들을招致하야 將來六個星霜이나 氏가그들과함께 千辛萬苦를 거듭하야온것이 耕地가年復年增加하고 農民들의生活은 安定을 期하게되여 現在河北農場에는農務係를비롯하야通北國民學校 自衛團이 施設되여잇스며더욱이 再昨年縣當局에서는 그들에게特典을주어 農價까지도 貸付하야自衛의萬全을期하야 濱北線一帶에 잇서서의 河北農場은 그들의 樂業地로써 氏의血汗의結晶體인同時 北滿開拓者의先驅이라고아니할수업스며 氏는以外에도 農産物의 集散地인 海倫縣順天大街 목직한거리에 生産米를 加工키

沈着한營農家! 張振秀 氏

氏는慶南昌寧郡出生으로 當年四十三歲의 老練沈着한 營農家다 昭和七年事變即後新興滿洲國의 開墾事業을目的삼고 海北鎭에서 匪禍로荒地化한 旣耕農地二百垧을利用하야 四十戶의農民을 入植한後急速한 聯合으로施設을進行시켜 天候順調計畫的中에拍子가마저 一邊學校農務課等을創立組織하얏는데 現在는氏의經營인 天德農場에 百二十戶七百人口의 農民이잇고 百二十名의生徒가 數寄속에修學하고잇스며自衛團으로 治安을自備하고協和會分會까지생겨 매우優秀한農村으로되엇는데 水利의利便을조차

로 機智가 豊富한 壯年紳士다 일직玄海灘을건너 神戶第一中學을 優良한成績으로 卒業하엿스며 距今六年前에 渡滿하야開原에서 三年間農場을 經營하얏고 農城縣憲兵隊와 前農城縣鮮人民會理事를 歷任하야 現在同縣

千餘農民安住地 綏化農村의全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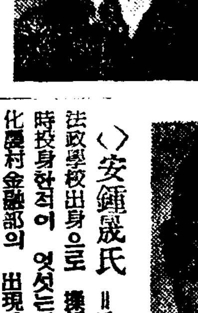
昭和七年北滿大洪水와 災變으로因하야 北滿各地에서 哈爾濱으로避難한者 萬餘名에達하얏는데 生路를잃코 正業에未就한農民들의羅農을爲하야 哈爾濱總領事館과 朝鮮總督府當局及 東亞勸業과의協議로써 昭和九年濱江省綏化縣內濱北線奏家站東北方約四十支里娘娘河領의 北部齊敏河左岸一帶平野에 綏化安全農村을建設하고 哈爾濱市内에 集居한避難民과 齊齊哈爾、海拉爾、北安鎭等의來集者를合하야 一千百五十四町步 千六百一晌의面積에二百八十九戶 九百二十九人의 農戶를 初年度에收容하고 四百十二町步 作付面積으로 三千七百五十五石의 收穫을어덧스며 昭和十年九月末現在에는 三百三十七戶 千三百十四人의人口가 七百餘町步作付面積에 二萬一千餘石의收穫高를보엿는데 그經營主體가 東亞勸業에서 鮮滿拓殖

株式會社로移管되엿고 農民指導機關으로 九個農務稧가組織되어 農村委員과 振興에 努力하얏다

現在九個農務稧가 一元化로 그組織을强化하야 農務稧聯合會로 長의 統制機關으로되어 直接鮮拓과의 모든中間交涉에 當하고잇고 初等教育機關도 設立管理하고잇는데 昨年五千餘圓의 巨額으로 新校舍를 竣功하얏고 또農村自衛團도組織하야 安全集團農村의 實績을 보이고잇는데 農民指導에잇는人物은 左와如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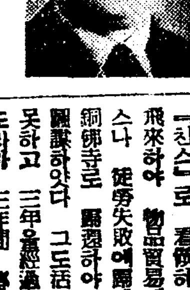
◇孟俊吉氏 氏는安州農業學校卒業하고 十四年間教育事業에 從事하고 朝鮮總督府農事講習所를 卒業하고 十四年間

◇任性宰氏 氏는大邱[illegible]出身으로 渡滿하야 營口農村에서 奉職하다가 綏化農村設立同時로 轉任하얏는데 現在農務稧聯合會首席書記로써 前面에서活躍하고잇고



◇李平林氏 氏는東滿에서 多年農村啓發運動에 盡力하다가 事變後北滿에 移住하야綏化農村建設初期부터 有功者로農務稧聯合會出現후에 同來[illegible]의要職에 잇고 [illegible]督府及濱江省囑託、綏化農村農務稧聯合會技手를 經歷하고 昨冬治廢後鮮滿拓殖會社主綏化農村主任으로 全般的指導權을 把持하고잇고

◇黃瑢淵氏 氏는朝鮮內地에서多年 敎育界의 有功者로 昨年에 綏化農村普通學校(現國民優級學校)校長으로 就任하야二千餘農民子女의 慈父와가티 推仰되어잇고



◇趙東煥氏 氏는京城醫專出身으로 오래동안 哈爾濱外에서 傳染病院長으로 잇섯는데綏化農村囑託醫로서 同村農民保健에責任者며

◇安鍾晟氏‖氏는 京城法政學校出身으로 操觚界에 一時投身한적이 잇섯는데 昨年綏化農村金融部의 出現과 同時에 그主任으로 任命된 新銳靑年紳士다

▲(寫眞 上으로부터 孟俊吉氏、李平林氏、任性宰氏、黃瑢淵氏、趙東煥氏、安鍾晟氏)

士農을兼하는 申達夏 氏

漸進的捕捉을 計畫하고있으니 氏의 着眼의透徹하고 老練한手腕으로 그將來가크게期待된다 (寫眞은 張振秀氏)

氏는 慶南昌寧郡靈山面出生으로 一間斗屋이업시지내되 二世

縣公署에 勤務하면서 相當한農土를 耕作運營하고잇다 (寫眞은 申達夏氏)

教育界의큰恩人 金東河 氏

氏는平北楚山郡出生으로 二十年前에 南滿通化縣七道溝에移住하야 小作農으로 滿洲開拓의先驅者의一人이다 重明學校財務로 三年잇다가 盤石縣으로轉任하야 營農에從事하얏스며 關西、東興等地로轉轉漂泊生活을 繼續하드니 十年前에 慶城縣에漂着하야 亦是農耕에着手하얏스나 清貧을 自足하고 流浪生活二十風霜이직도

國民을爲하는 熱과力은 氏의血脈에貫流하고잇서 寒星한草創荒野에서 錦繡를을고 血汗을흘니면서도 狹窄無比한自家斗間에서 自身教鞭을잡고 初等教育에熱中하야 慶城縣은勿論 北滿初等教育界의(恩)恩人으로 現在國民優級學校의礎石을만든것이니 氏의 今日의赤貧한自家生活이 무엇보다 氏의人格과性癖을說하고잇는 것이다

的機關으로서運行할것을 看破하고 北滿의穀倉인慶城綏化 鐵驪에中心勢力을扶植코저 五十萬圓의株式會社를組織하야 名稱을北滿興農公司라하고 土地事業에進出하얏는데 三十四歲의元氣旺盛한金益鎭氏가代表社員이되고 平南安

覇氣滿滿한靑年 許萬瑢 君

君은平北昌城郡出生으로 當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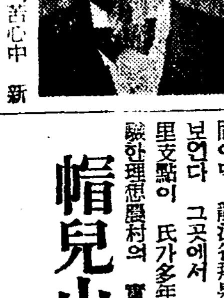
어를專擔하고잇는데 現在公司所有土地는 慶城鐵驪兩縣에만三千八百餘垧이잇고 一年間加工되는精米稻子는 萬餘石에突破하야新銳한靑年實業家의陣容으로 北滿農地에서 그들의奇拔한計畫은優秀한資本力으로躍進하고잇다한다 (寫眞은 稅職된趙子와 專務朴[illegible]秀氏)

同胞를保護하는 白昌鳳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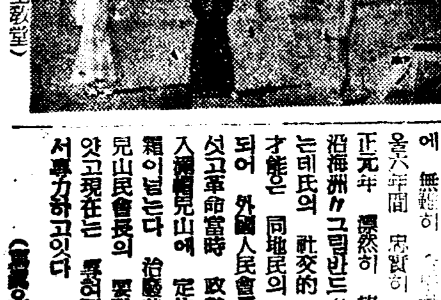
氏는 朔州郡外南面出生으로當

사람은 밥만가지고 살수업다 하야 靈的救世事業을 天職삼아 왓스나 밥이업는데서 靈魂의安息生活은 不可能이라는것을 看取하게된氏는 刻苦勉勵靈肉一致의

農民樂園建設한 鄭駿秀 氏



理想實現으로貧農救濟에 一生을 바친것이니 父祖二代를 뒤어어 天主敎를 信奉하야 殉敎的生活로 傳道에獻身한氏는 本籍地大邱로부터 大正七年에 東滿間島明月溝茶條溝에 몸을던저 三十垧의農土와 銅佛寺建物을 買收하고 氏의理想實現에 汲汲하얏스나 現實은 그의力量을 嘲笑하게되매 資金調達에苦心中 新聞報道로 聯合軍西伯利亞出兵의 記事를보고 戰疲物을之한 露貨로 物資의輸出은 物心兩面의救濟이同時에 自己事業의 絶好의 『찬스』로 看破하고 哈爾濱에 飛來하야 物品貿易에 着手하얏스나 徒手失敗에歸하니 不得已銅佛寺로 歸還하야 資金捻出을 圖謀하얏다 그도活路를 開拓치 못하고 三年을經過하야 大邱로 도라가 三年間 傳道生活에着心하얏스나 所期의野望을 實現을 爲해 昭和元年 哈爾濱으로 同三年에 海北鎭에 定着安住하야 全力血路를 開拓하니 氏의功은 세워지고 目的은達하야 現在二千垧의 善牧農場에는 數百貧農 이集中되여서 讚頌歌를부르니 氏의거룩한 靈肉一致의 理想實現은 여기에光明이 비치고잇다 (寫眞은 鄭駿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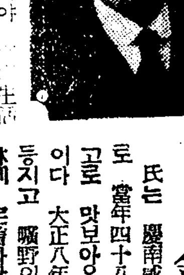
(寫眞은 芳塔天主敎堂)

帽兒山의主人公 國民學校長 白雲鶴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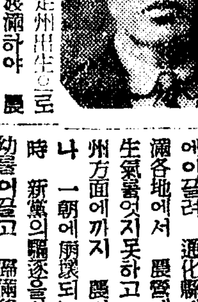
十年이 一日가티 育英事業에 專力한 平北龍川郡出生白雲鶴氏이말로 帽兒山에 잇서서 耳目잡은 壯年紳士다 氏는일즉 京城師範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朝鮮總督府判任官 試驗

에 無難히 合格하야 文官生活 오六年間 忠實히 文職하더니 大正元年 飄然히 故土를 등지고 沿海州〃그립반도〃에 赴走하얏는데氏의 社交的 手腕과明敏한 才能은 同地民의 信望을 밧게되어 外國人民會長에 (公薦되엇고革命當時 政勢不安을 따라서 入滿帽兒山에 定住한지 十五星霜이넘는다 治廢前까지 氏는帽兒山民會長의 要職에서 活動하얏고現在는 專혀國民學校長으로서專力하고잇다

(寫眞은 白雲鶴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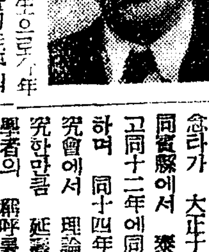


三道鎭農場과 玉明善 氏



玉明善氏는 平北定州出生으로 距今二十餘年前에 渡滿하야 農耕生活과 그運轉에 잇서서 豊富한 把握力이 만흔 志實沉着한 當年三十八歲의 經營家다 氏는일즉 新安鎭一帶에서 滿洲農村의 理想的建設을 計畫하고 볼라는希望과 抱負속에서 歲月을 보내다가 河北農場出現當時經略으로써 그理想實現을 企圖하든中 昭和十一年에 自作農創設을 目的삼고 三道鎭 農場設立에 着手하자 河北農場經理를 辭任하고 마럿다海倫에서 自轉車를타고 二時間이면 龍江省拜泉縣 三道鎭이 보인다 그곳에서 西南方 十五里地點이 氏가多年 熟考하고 體驗한理想農村의 實現舞臺가된다

縣內代表的人物 民會副會長 洪永德 氏



氏는 平南中和郡出生으로 當年三十五歲의 沈着鈍重한刀圭界의 重鎭이다 일직이平壤醫學講習所를 拔群의 成績으로 卒業한後

本籍地에서 多年硏究와實驗에專念하다가 大正十一年에 前吉林省同賓縣에서 泰西醫院을 開業하고同十二年에同德醫院이라 改稱하며 同十四年五月 同賓縣醫學硏究會에서 理論과 實際를가르치고 延壽縣에잇서서 臨床硏究만큼 學者의 稱呼를밧고잇서相當히信任이두텁다 昭和十年同縣 朝鮮人民會 副會長으로서社會各般에 脚光을보이게되니 財產家로서名望家로서 同縣最高層의人物의하나이다 (寫眞은 洪永德氏)

北滿의斥候隊 金容碩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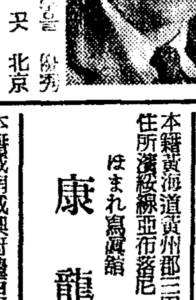
氏는 慶南咸陽郡瓶林面出生으로 當年四十八歲의 人生苦를맛본 고로 맛보아온純粹農民의 猛者이다 大正八年에 그리운故土를 등지고 曠野의 滿洲로 달니어 海林에 定着하야 北滿開拓의 斥候隊의 役割을遂行하얏는데 그後二年이지나 張作霖과 吳佩孚사이에 衝突對立抗爭이생기자 戰禍中에 生死兩道에서 彷徨하얏스며 土着民에게 무수히定着을 拒否당할때 敎鞭도있었으나 意外에 圖忍受하면서 不屈不撓 功은 다시무르지게되며 雪上加霜格으로 事變이 突發되니 心身이 苦杯를 맛보게되여 形言키어려운悲哀의 苦杯를 맛보게되엇스나生命은 餘生을 哈爾濱으로

辛苦를克服한 金元植 氏

氏는 江原道平海郡平海面賁佛里出生으로 當年二十五歲의純實勤勉한 靑年實業家로서 距今二十八年前에 生活苦로 父母의손에이끌려 通化縣에入滿한後 南滿各地에서 農營에 轉轉하다가 生栗을엇지못하고 마침내 沿海州方面에까지 흘러저가섯스나 一朝에 廢業되는 帝露革命當時 新黨의 驅逐을바더 不得已老幼를이끌고 歸滿後八年前 延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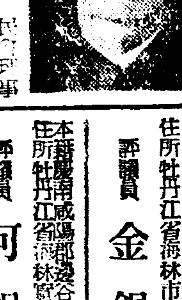
에 渡滿하얏 同來十餘個의私事엔 關치안코 언제든지 社會와 農民同胞의 利害休戚에 발벗고나서는 勇者이니만큼 前日엔 當地民會長에 定着하얏고 現在로는 農務稧長自衛團長 金融組合長等 全般要職의 指導者이다物心共히 私力을 不惜하야 農村啓發에 專心盡力하는그氣慨야말로 同縣一般大衆의 敬仰의的이되니만치 氏를除外코 各般議論은決定치못하게되여 實로 新安鎭의 巨大한 礎石이되는 人物이다 (寫眞은 姜昌孝氏)

將來가囑望되는 崔魯松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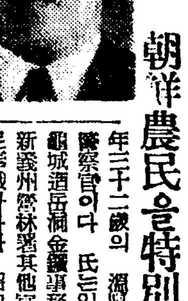
氏는일즉이 [illegible]中學을 卒業하고 곳 北京華北大學專門部政經科를 拔群한 成績으로 畢業한 當年二十八歲의 俊才이며 眉目爽麗한 美男型인데리 紳士다 和五年에 東興中學校에서 敎鞭을 잡고 專心育英事業에 獻身하다가 滿洲國의 飛躍的發展과 通契機에서 和龍縣公署社會敎育股主任으로 任官되니 氏는滿洲國의 忠實한官吏로서 努力하얏다 昭和十二年北滿으로 移住하야 朝鮮人民會理事로就任한 來 湖南營同胞를 爲하야萬般에 亘한斡旋과中間役割의 努力을아끼지안코 中堅靑年으로 將來가 크게囑望되는人物이다 (寫眞은 崔魯松氏)

移民의指導者 車鐵秀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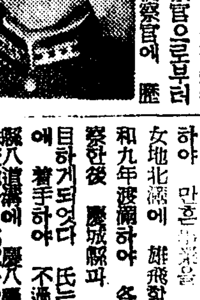


氏는 平北鐵山郡西林面出生으로 當年二十九歲의 溫厚明敏한 靑年이다 距今十四年前에 渡滿하야 大連에서 商工學校에 修學中事情으로 因하야 中途退學을 不得已하얏는데 事變後 北滿東寧縣에 [illegible]任하야 民會理事로서 氏獨特의 手腕을 發揮하야 農民層의 온갖 便宜와 斡旋에 盡力한것은 當地一般의 共鳴하는 同時에 氏의 功勞를 讚頌하는것이다 治外法權撤廢에따라 滿洲國際公署로 就任한後더 鮮族의 立場을 직히고잇스며 自身官職外에 自作農으로 農事에 힘쓰고잇다 (寫眞은 車鐵秀氏)

松村參事官 朝鮮農民을特別愛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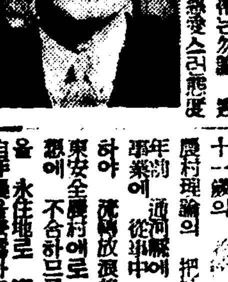
[illegible]當年四十歲의 壯年地方官이다 元來政治的手腕이 明敏한데다가 熱과力이 具備하야 所信에 邁進不退하는 意氣男兒로서 北滿一群地哥爾縣에 斷然模範縣으로 面目一新케한것은 氏의 熱力에 基因한것이다 더욱이 貧窮無援한 朝鮮農民을 極力愛護扶擁하야百餘戶一千垧餘의 水田區를 紹對支持完成케하얏고 現任地海倫에 잇서서는 昨年治廢即前부터 海北鎭中心으로 三四聯校의 金融的經濟引受를 斷行하야 美果잇



任하다가 當局의推薦에 依하야 昨年二月에 牧丹江鐵路 局林口新京、蘇家屯領事館警察官에 渡滿하야 關東廳警察官으로부터 年三十二歲의 滿洲寬大한滿洲國警察官이다 氏는일직 學窓을나와 鍾城道廳及鐘金鑛事務所에勤務하고 新義州營林署其他官公署의 官吏로奉職하다가 昭和七年事變翌年科에서 勤務에忠實하고 현재 特務科巡監으로 職務에 忠實하고 잇스니 氏의滿洲國官吏로서의 在住同胞에 對한努力은매우커서 未來의 榮達이잇슬것으로 엇고잇다 (寫眞은 白昌鳳氏)

氏의滿洲國官吏로서의 [illegible] 科에서 勤務에忠實하고 잇스니 今後의氏의活躍은 더욱注目된다 (寫眞은 李胤永氏)

名聲을떨치는 醫師 金東燁 氏



氏는 十二歲時에 父母에게끌니어 渡滿하야 當年卅二歲의純情이 넘치는 靑年醫師다 일즉 北滿阿城縣立敎業中學을 滿洲人學生에서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기는 昭和二年이엇다 獎勵에서 東光醫院으로 哈爾濱 開業하얏다가 滿洲事變으로 哈爾濱에 避難하야 哈爾濱市立第二醫院 醫師로 奉職하얏섯는데 昭和十年 同縣奉天大街에서 濟北醫院으로그 名聲을떨치고잇스며 特히 外科와 婦人科를 專攻한만큼 그方面의 患者의 施療가 不少하다 (寫眞은 金東燁氏)

면의 明日은 크게期待하고잇다 【寫眞은 金寬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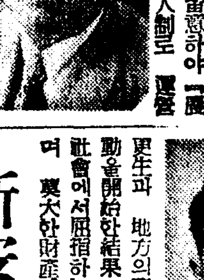
이어 [illegible]敎의 設立、農民의 [illegible]經營氏의 今日은 明日의 民衆이며 段階다 同縣人士는 氏에 着手하엿고 擧校의 設立、農村의 經營을 開展하며 漸進的自家理想을 實現하고 會長에 公薦되어 農村統制에 依하야 먼저 自身이 民會를 創立하는 手腕과 卓越한 社交의 敏能에 安全한 [illegible]바로 慶城縣이다 政治的

開墾事業을大成 慶八農場主 李胤永 氏

氏는 黃海道鳳山郡萬泉面出生으로 當年三十六歲의 溫厚鄭重한 大農人이다 氏는 本籍地에서 有數한 素封家의 子弟로서일직京城培材高普를 卒業하고 治產家에 主力하며 自學獨硏으로專門大學程度以上의 實力을지 엇는데 特히 農村文化向上과 農民의 文盲退治에 留意하야 『農事學院』을 財團法人制로 運營하고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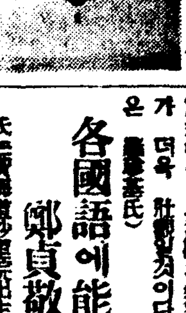
[illegible]에 移住하얏는데 이에도 如前히 어려운生活을 봇드러나오면서 오직 信仰으로 辛苦를克服하며 自力更生과 地方의啓蒙을爲하야 活動을開始한結果 今日에는 延壽社會에서屈指하는重鎭이되여잇스며 莫大한財産과 一般의信任을바

하야 만흔 同族을 攴援하든中處女地北滿에 雄飛할 壯志下에昭和九年渡滿하야 各地農場地를調査한後 慶城縣과 稷寧縣을 相目下하게되엇다 氏는 곳土地開墾에 着手하야 不過一年에 農城縣八道溝에 慶八農場 水田三百餘天地를 完成하고 黑魚泡稻田公司를 設立하야 亦水田三百餘垧을 經營하게되니 現在兩個所百七十戶五百餘農人을가진 模範的安全農村은 氏의 多年間熟考하든成案의 一端에不過한것으로今後의氏의活躍은 더욱注目된다 (寫眞은 李胤永氏)



(寫眞은 [illegible]朴元得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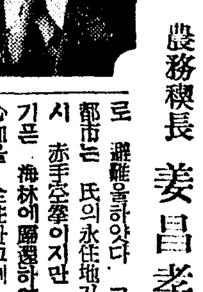
存在가뚜렷한 金在台 氏



氏는全北[illegible]出生으로 當年五十一歲의 [illegible]『고무리안』的 農村理論의 把持者다 距今十三年前 通河縣에 移住하야 開墾事業에 從事中 事變勃發로 因하야 流離放浪後 昭和八年 河東安全農村에로 移住中 自衛團에 不合하므로 다시 柳河鄕을 永住地로 定하고 同鄕에서 自作農을設하고잇스며 同鄕農務稧에잇서서 氏의 存在는뚜렷한 事實이라다 (寫眞은 金在台氏)

四十七歲의 [illegible] (寫眞은 [illegible]氏) 年三十一歲의 俊秀한靑年醫師이다 일즉이 東京中部醫學校를 卒業하고 三年間開業하다가 昭和十一年 渡滿하야 入滿과 동시에 現在 外科와 婦人科를 專門으로하는外士人間에서도 開業함으로 日本內地人 파 朝鮮人의 好評은 勿論 滿洲本人으로서 氏의 前途는 洋洋하고잇는터 옷이住滿同胞中에 新醫學을 行하고 名實共히 [illegible] 滿洲國民의 協同에 貢獻하는 仁術을 施行하야 三樂一帶의 醫術을 펼치고 近在縣에서도 氏의 聲望을 [illegible] (寫眞은 朴元得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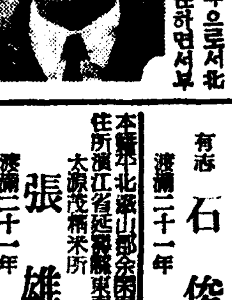
新安鎭의礎石! 農務稧長 姜昌孝 氏



氏는 松禾郡栗里面出生으로 當年四十三歲의 活動家다 氣質이 剛直하고도 快活하며 寬厚하고도 豪放하야 每事에 陣頭에나서는 前衛的好事家다 昭和二年에 渡滿하얏

로 避難을하얏다 그러나享樂의 都市는 氏의永住地가못됨으로다시 赤手空拳이지만 因緣과由緖기픈 海林에歸還하야 勤儉力行心血을 全注한때 二十餘晌의 農土와斗間草屋일망정 所有하게되며 模範立志傳的人物이만큼衆望에依하야 民會評議員에公薦되엇도 가장最近의事實이다

各國語에能通 鄭貞敬 氏



氏는黃海道沙里院出生으로 當年三十五歲의 前途洋洋한 靑年紳士다 二十歲前後하야 單身渡滿히入滿하야 當時長春(現新京)에서苦學으로 商業學校에 學籍을두어專心修學中四國의 語學을 正통達하야 一個農村靑年으로서 北滿靈峰 一面坡에 赴任하면서부터 軍司令官에 [illegible]하야 [illegible] 事務에 밝어 그能熟한 日滿露英各國語를 驅使精通하는데서 信任은 날로두터워갓다가 每事에 忠實하고 勤勉한데다가 仁慈溫厚한 品格은 氏의明日의 躍進을 豫想하기에 足하다 (寫眞은 鄭貞敬氏)

한〃찬스〃로 野砲隊에 入隊하야 한것인고 氏의功績에다가 氏獨特한 勇敢한 그여번이나 死境에서 往來한 [illegible]로 [illegible]하다가 偶然 [illegible] 匪賊討伐戰에 氏의勇敢한 實戰에 殺에 [illegible]聯合 하얏다 事變勃 [illegible]

會 [illegible]民會解消後에 日本人民會에 公薦되엇고 [illegible]公署에 [illegible]에 [illegible]하고잇서 氏의 力量의自由發揮는 그好例이가 더욱 注目되거니와 그活躍의 金額은 今後 [illegible]이다 (寫眞은 [illegible]氏)

李元根 住所濱江省[illegible]

渡滿十一年 安昌達 住所濱江省延壽縣[illegible]

金達弘 住所濱江省延壽縣[illegible] 平安精米所

渡滿二十年 趙炳泳 本籍平北[illegible] 住所濱江省延壽縣[illegible]

渡滿二十一年 有志 石俊尙 本籍平北江界郡[illegible] 住所濱江省延壽縣[illegible]

渡滿二十一年 太源茂精米所 張雄甲 本籍平北寧邊郡[illegible] 住所濱江省延壽縣[illegible]

渡滿二十二年 崔鉉武 本籍江原道[illegible] 住所濱江省延壽縣公安街

渡滿十九年 李寅國 本籍黃海道長淵郡[illegible] 住所濱江省延壽縣玉河鄕

自衛團長 崔景玉 本籍咸北鏡城郡[illegible] 住所濱江省延壽縣玉河鄕

渡滿二十年 金致洙 本籍慶北慶州郡江東面[illegible] 住所濱江省延壽縣玉河鄕

團長 朴喜緖 本籍慶北[illegible] 住所濱江省[illegible] 寶興保朝鮮人自衛團

東滿精米所 池潤球 本籍平北定州郡郭山面石洞 住所濱綏線一面坡警察街

全昌律 本籍平南中和[illegible] 住所濱綏線一面坡南合街 全滿精米所

金永華 本籍平北龜城郡[illegible] 住所濱綏線亞布洛尼

ほまれ寫眞舘 康龍麟 本籍咸南咸興府[illegible] 住所濱綏線亞布洛尼

金錫鉉 本籍黃海道黃州郡三田面[illegible] 住所濱綏線亞布洛尼

東亞精米所 金永吉 本籍平南平原郡[illegible] 住所濱綏線亞布洛尼

權豪範 本籍咸北鏡城郡龍城面水北洞 住所濱綏線山市

區長 金昌俊 本籍咸北富寧郡富寧面[illegible] 住所濱綏線山市

李範禹 本籍咸北鏡城郡朱北面龍山洞 住所濱綏線山市站前

洪濟醫院 桂洪植 住所牡丹江省寧安縣海林山市

玉泉商店 李利碩 本籍慶南密陽郡密陽邑[illegible] 住所濱綏線山市

海林 安鎭

評議員 金錫永 本籍江原道蔚珍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海林市場街三二

評議員 河錫凡 本籍慶南咸陽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海林[illegible]公司

評議員 全慶淵 本籍江原道蔚珍郡蔚珍面邑內里 住所牡丹江省海林實業公司

渡滿十一年 金容大 本籍慶南咸陽郡瓶林面西州里 住所牡丹江省海林實業公司

鄭聖學 本籍江原道[illegible] 住所牡丹江省海林[illegible]

渡滿十一年 金成文 本籍江原道[illegible] 住所牡丹江省海林[illegible]

渡滿二十年 洪山 本籍慶北[illegible] 住所牡丹江省海林[illegible] 電話七番 [illegible]

富南永泰商店 本籍平南[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illegible]

金貞泰 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新安金融會

永昌號 主 李炳璣 本籍京畿道利川郡大月面大淵里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姜明圭 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東和商店 方順禹 本籍咸北明川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大豊號 崔昌世 本籍咸北鏡城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illegible]

大成商店 金順鶴 本籍咸北[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陶磁器 諸雜貨 食料品

東興商店 主 都禮周 本籍慶北慶山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大同商店 主 朴暎求 本籍平南[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綿布木 各種雜貨

林農場 林倫喆 本籍開城府高麗町八八六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三共商店 尹泰成 本籍忠北忠州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綿布木 各種雜貨 海陸物産

吳鄭在浩 主 本籍黃海道安岳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各種藥品 直輸入元 維信藥店

五星旅館 崔承勳 本籍平北慈城郡慈城面邑內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日支商店 張泰琪 本籍黃海道[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新興旅館 趙桂大 本籍平北龍川郡邑內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平壤旅館 金平國 本籍平北義州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北星藥房 姜尙浩 本籍咸南高原郡上山面[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新安鎭

趙希道 本籍平南[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公署前街 電話五七番

北滿電機商會 李重一 本籍平南[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興隆街 電話三七番

寧光商店 李鍾三 本籍慶北[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西大街 穀物商 電話三八番

協成社 李[illegible] 本籍咸南咸州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西大街 電話一六一番

養信時計店 李宗[illegible] 本籍咸南北靑郡[illegible] 住所牡丹江省寧安縣中馬道 電話五二番

全相道 牡丹江省寧安縣城

仁濟醫院 金[illegible] 本籍咸北鏡城郡[illegible] 住所三江省樺川縣林口市 電話一六番

勃利醫院 院長 [illegible] 三江省勃利縣城內 電話四九番

金永哲 三江省勃利縣城[illegible]

旭東洋行 朱一相 三江省勃利縣金華街 電話一四一番

全在文 三江省依蘭縣湖南營 [illegible]長

長春館 金貴蓮 本籍咸南[illegible] 住所三江省依蘭縣湖南營

康處學 朝鮮人民會 會長 [illegible]

日光精米所 李圭杓 本籍江原道[illegible] 住所三江省依蘭縣湖南營

濟生醫院 劉貞煥 本籍黃海道[illegible] 住所三江省依蘭縣湖南營

湖南商會 李承治 三江省依蘭縣湖南營

明興植 三江省佳木斯南崗大街 電話六〇七番

金永瓚 本籍京城府[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南崗大街

吳益鉉 本籍黃海道黃州郡黃州面[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東大街 中央鐵工所 電話五〇九番

三江洋服店 車在瑛 三江省佳木斯南崗大街 電話五〇九番

三村洋服店 李京春 本籍咸南[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illegible]

鄭熙燮 本籍黃海道安岳郡[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illegible] 電話二二七番

沈圭鉉 三江省佳木斯南崗大街 電話四二〇番

獨孤柏 本籍平北義州郡古官面[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南崗大街

朝日旅館 宋[illegible] 本籍咸南利原郡[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illegible] 電話六六二番

金融會 會長 [illegible]宗 三江省佳木斯通江街 電話六一五番

同仁醫院 李[illegible] 本籍黃海道[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illegible]

同本印刷所 金[illegible]洙 三江省佳木斯永安街 電話三三八番

北滿運輸公司 李[illegible] 三江省佳木斯長春街 電話六二四番

南崗藥店 崔[illegible] 三江省佳木斯南崗大街 電話六〇二番

湯原朝鮮人民會 會長 權孟哲 三江省湯原縣鶴立崗

南崗仲介所 朴守英 本籍慶南[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illegible]

淸水堂 李興俠 三江省佳木斯南崗大街

日興商店 金乙山 本籍黃海道[illegible] 住所三江省佳木斯[illegible]

友利藥局 許贊日 本籍平北[illegible] 住所三江省湯原縣鶴立崗[illegible]

各道支社長大募集

規定書郵送함

조선제일에서 동양제일로
동양제일에서 세계제일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소원이 드듸여 실지로
증명되게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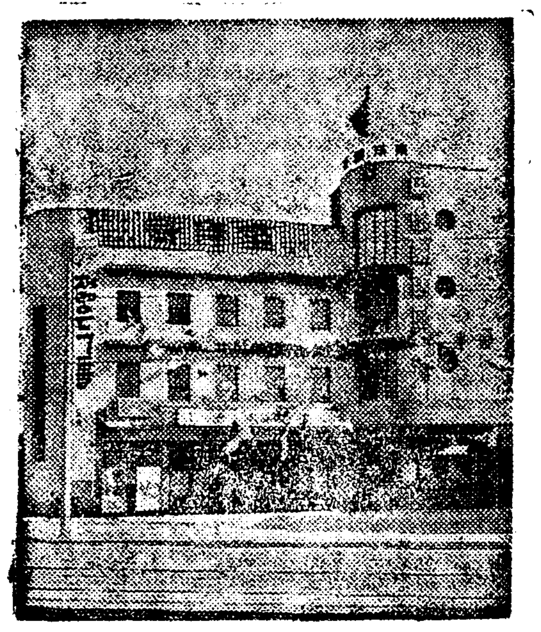
謝恩御招待

明治座　東洋劇場

未曾有의大英斷
千載一遇의好機來!!

이런광고와 발표한 감사장은 신성당이아니면 잇슬수업는 선물입니다 건강보국(健康報國) 명약의진가(眞價)를 냉정히생각하야 주시고 더욱 사랑하야 주시겨바랍니다

병고치고 조흔구경하시고 心身共榮의 조흔긔회!!



동양극장전경

림질대하증 부인병으로아이를못낫타가신성당약을쓰시고생남생녀하신

여구구개월 편해소가 에치뻬ㅣ로 전멸

자심구세에 가이자ㅣ를 쓰고 삼십전거운을써

도루사한제 예촌충이전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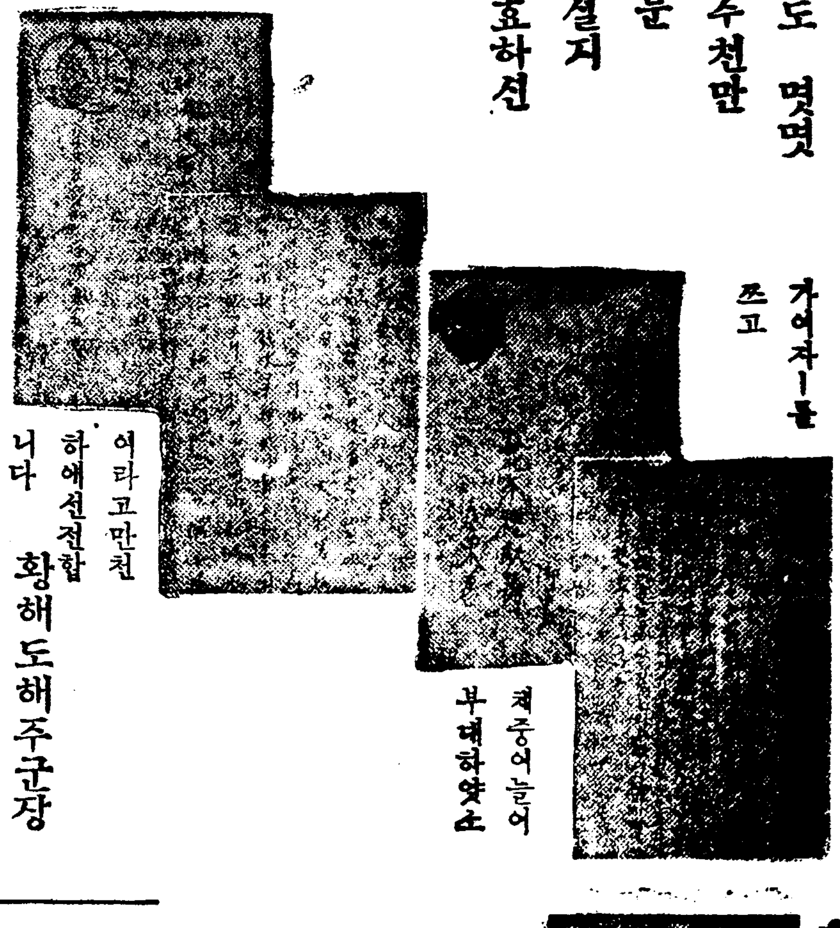
구로벨로 나도낫스니

다른사람에게도소개하오

감사장은 업고 명사의 추천장이니 증명서니하는 약은 절대로신용마시오

이감사장은하로에도 멧멧장썩드러옵니다 수천만명에매일약을 주문하시는 것도약을설지로 써보시고 득효하신분들의구전으로 꼭멋고 쓰시는것 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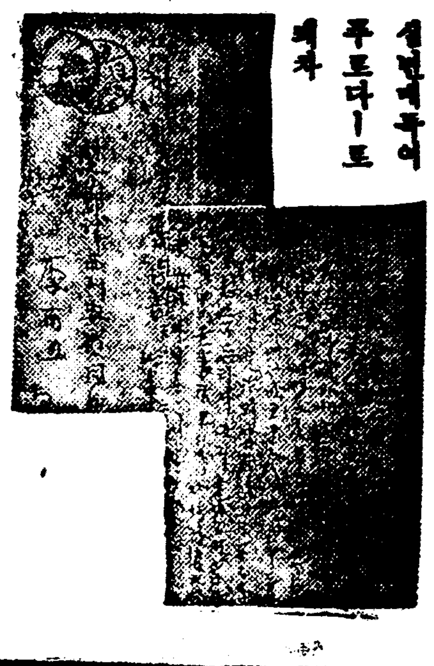
폐병낫스니 나오뻬가 제일



가여자ㅣ를 쓰고

여라고만천하에선전합니다

체중어늘어 부대하엿소



황해도해주군장곡면장 壯谷面 어른 겡오ㅣ한제를 쓰시고 신기한약효에 감동하시와 삼신산 불사약이라고 감사장을 보내셧습니다 오래된 체중주체、체적괴、속병 가심아리에 잘듯습니다 보벼위도 함으로 근본적으로 소생합니다 속병 체중 오래된데 특효

겡오ㅣ

속병·체증·오래된데특효

겡오ㅣ 主治効能

소화불량
만성위장가다루
적、괴、위괴양
신경성위약
위확장위산과다증
오래된체중속병이
단시일에쾌차

약가

완고용 오원
중증용 삼원
경증용 이원

보시요!!

명약의 참된 가치는 명약자체가 이러한 사ㅣ대증거를 보여준다

백가지말보다 이한장의 감사장이 증명한다 이 감사장은 위조는 못한다 다른곳에는 업는것을 보아도알수잇다 위조하면 경찰에서야단한다 그러니 이감사장만은 절대로 신용하시오

약의 효력을 확신하시오

천하무적(天下無敵) 명약의진가(眞價)를선전하기위하야

英名

招待方法

一、서대문 신성당

칠대명약(七大名藥)중에서무슨약이든지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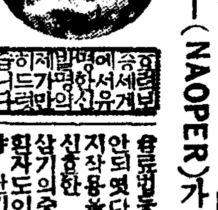
地方特待

지방에서 주문하시는분은 가여자ㅣ십원짜리를 반액 오원 에드리고 입장권대신으로 약을 무료로보내드리겟습니다 여런기회는 또업습니다 오월말일까지

神崎神聖堂藥品

조선서제일큰약업회사
資本金百萬圓
鮮滿總發賣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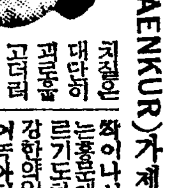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뻬ㅣ(NAOPER)가제일



증세보고 예서유게 명하신 의명가만 제일 드리다 하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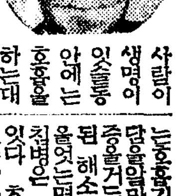
폐병은 난치의병인데종래의치료가불완전하얏다입때까지는환부의균만죽이라고들엇스나 그래서는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필요하나한편으로 몸도보하고잡식(雜食)하는 부분을막는법이새로발명되엿다 즉살균、보혈、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 일시에한다 종래에는 이 삼작용을 시키는데 여러가지로 애를썻다 제일약과음식과일광욕과산소흡입법가루음료법등이잇스나마음대로안되엿다 그러데 이여러가지작용을일시에다하는 참신기한 약을발명하엿다 즉삼기의중병으로 고통하는환자도이약을 먹기시작하야 단기간에대효를본 참신기한약이다 별별약과치료를하야도 안나어 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속히나오뻬ㅣ를 꼭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침하고 숨결담을뱃고 괴롭게하고 숨이차고원기업고가슴이압푸고 열구리가결리고수족이찹는등은쓰시오 (약갑)삼개용이십원 이개용오원 초기용오원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치질엔 엥구루(AENKUR)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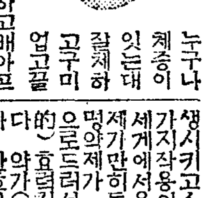
치질은 대단히 괴로운 고더러운병이라 심하면 홍문에큰구멍이뚤서 색지납니다 보통수술을하느니하나근을도려내지는 못한다 치독파균을 속으로 업새지아니하면 다시 도진다 엥구루는홍문에 넛키도하고 바르기도하는편리하고효력이강한약인대 이약을너면약이녹아퍼저서기피든독에신효하다 암치질숫치질피나고고름나는치질 가려웁고아픈치질탈항증에잘듯습니다 약갑 중한데는 삼원경한데는 이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보내드립니다 병이좀심하면 삼원분을쓰시오

기침 해소엔 에치뻬ㅣ(ECHIPER)가제일



사람이 생명이 잇슬동안에는 호흡을 하는대 이호흡기관에병이잇스면생명에관계가된다 해소、기침、담천촉증은호흡기관의병이다 감기로 기침을하야노목이아푸고 끌이쏘다지고 기운이탈진하는대 해소기침병으로오래고생하면 갈수한다 심하면제일무서운폐병으로변하고폐염이되여위급하다 신성당명약에치뻬ㅣ(ECHIPER)는호흡기관을유태하게하고담을압맛치 처서업새고 염증을거두게하므로 수십년된 해소、천촉증에도 효력이잇는명약이므로 보통기침병은 몃칠안써도효력이잇다 호흡기병으로 해소、천촉、만성기관지가다루、급성기관지가다루、경해、기관지농루기관지확장백일해、등에신효합니다 폐병기침에도 조소。약갑은고증에 오원 중증에 삼원 경한데는 이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요 당일로보내드리오 약은한약인대불약보다몃배더조흡니다 병이좀심하면오원분을쓰시오

체중 속병엔 겡오ㅣ(KENGO)가제일



누구나 체증이 잇는대 잘체하고 구미업고끌꾹하고 신트럼하고배아프고 설사하고가슴이쓰리고 생목이올나오고 배가부굴부굴하고방기가 자지고하면체증이라곳안고치고꼭맥키면죽사한다 맥켯든관격도곳뚤는것이겡오ㅣ뿐이다 가슴아리、속병、체적이되여 생명을 빼앗기게되니 어찌두렵지 아니하리오 그런대보통갑시싸고일시적인위장약을써서 습관성으로중독이되야항상약을멀줄모르고병객으로일생을맛치는일이잇다 겡오ㅣ(KENGO)는 약효위대하야일시적이아니고 비위를보하고 위장의근본조직을다시 소생시키고소화를잘시키는세가지작용이잇다 그셩분도세계에서유명한『휘페ㅣ』제가만히들고 특효한신발명약제가 합리적(合理的)으로드러서 리상적(理想的)효력잇는속효한위장약이다 약가(價)도 다른약보다 만흐나 병이잘낫고 몸을보하야 살이찌고 음식을맛잇게먹게되니돈앗갑지아니한 고귀한약입니다 위장약으로 일주일분에 원자리『겡오ㅣ』박게또업스나 약효가 대단신효한 입니다、수십년된체적이하제에효력을보앗스니 삼신산불사약이라는 감사장까지오는일이잇습니다 별별약을써도 신통치못하야고통하시는분은 꼭한재써보시오 꼭만족하리다 약갑은고증엔오원 중증엔 삼원경증엔이원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병이심하면오원분을쓰시오

책임조제니약을써보아만일마음대로안되면어떠한책임이든지집니다

資本金百萬圓 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府西大門電車停留場前
本舖總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ケンオー 겡오王元
電話光化門 (三)四〇四番 七九七九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中部版

蓬萊町薪炭都賣場 來六月淸凉里移轉?
西北部住民들은不便을憂慮 淸凉里一帶繁昌을期待

철도국에서는 경성역안에 엇는 신탄장을 청량리 즉동경성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 안을 작성하야 기일만 정하면 옮기기로 되엿는데 철도국장이갈린관계로 좀 시일이 천연되게 되엿스나 아모리 늦드라도 오는 유월에는 이전을 시키게될 모양이라한다 따라서 경성부에서는 그비린에 중앙도매시장(中央卸賣市場)의 건축공사를 착수하게되기로되엿다 이와가티 경성역으로옴겨가게되면 서부일대와 복판에잇든신탄장이 동편한쪽구석으로옴겨가게되면 서부일대의주민은 상당히 불편이 생기게될터이며 또한나무를 사드리는 운임도 더비싸 게치일 염려가 만타한다 그러나 청량리일대와 동대문밧 주민들은 퍽신편의하게 될터이며 또한청량리일대의 융성진가를한데서 는획신 번창하게 될것으로 보고잇다한다

長湍産叺二十萬枚 三十萬枚增産計劃

【長湍】장단군농회에서는 농가의 부업장려와 생업보국을 목표하고 각종 부업장려에 고심노력하엿는데 장단가마니는 전조선적으로 일반이 알려지게되야 금년일월부터 사월까지 생산한가마니가 이십만 사천오백이십매에 달하야 전년동기의 천칠백매에 비하면 약 삼십배의 증산으로 불균미증유의 호적을 나타내게되엿다 또 유월까지 삼십만매생산을 목표로 증산계획을 세우고 일치사업의진에 노력한다고한다

에아동의 건강심사(健康審査)에 병든아동에대한 약품급여(藥品)에 ... 여러가지 사업을하야 조치를정하엿다고한다

楊州優良兒童 十名選拔褒賞

【楊平】양주면(楊州面)주최로이 번어린이주간에 양주면 건강심사를 지난칠일에 양주면 에서하엿다 심사아동은 칠십일명에달하야 그동안 심사장(審査長)의학사유기춘(柳基春)씨의 심사결과를 십일오후두시부터 양주군회의실에서 발표하는동시에 표창식을거행하엿다 심사아동칠십일명중 갑(甲)에 해당한자사십이명, 을(乙)에속하는자 이십오명, 병(丙)에속하는자일명으로 성적이 대단히 우량하엿다 그중에서 성적이우수한 아동열명을뽑아서 상품과상장을 수여하엿다 그중에서도 최우량하야 동듸명에게는 부상(副賞)으로조선사회협회상(朝鮮社會協會賞)이 잇섯다 상을바든아이의 이름은 다음과가다

▲最優良兒童=金炯憲 山本八十治(以上社會事業協會賞及座褥)

▲優良兒童=崔仁植 池淡江 崔炳淑 森武雄 銀一之 金相硏 李相九 尹政宏以上座褥一個式

清酒도統制合同 仁川稅務署에서促進

【仁川】인천부에잇는 청주양조업자를 오개소를합동하야 통제하기로 추진중인데 여기 부내에는 육개소의 청주양조업자도 석수제한에따라 육개소를 사개소로합동할방침으로 인천세무서(仁川稅務署)에서는오래전부터 조사에착수중이엿스나 도시계획령에따라 양조장소가문제되어잇슴으로 구체적해결을보지못하엿는데 느저도금년가을까지에는 결말을보리라하야 그조사를 진행중이다 이것이실현될때에는 이상백여석의 양조장이업서지는 반면에는 수천석의대양조장이 인천에 또 생기게될터이다 현재업자간에도 대부분이 양해가 된모양이여서 장소만을 선정조사중이라한다

西海에조기豊漁로 漁村에俄然活氣

【仁川】경기도 어업조합연합회(京畿道漁聯)에서 조사한바를보면 관내어민의 총호수가 오천칠백이십구호에 그인구가 약일만이백사십팔명으로 그들의 생명선이 서해(西海)일대의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수잇는고기잡이로 풍어기를 마지 하야 비상한 활동을하여 인천부두에 상륙되는 고기가한달에도 수십만원에달하는데 요사이와서는 조기(石首魚)가매일평균 오륙천원어치에 잇서서한산하던 어촌은 활기를 띄고잇스며 인천부두에는 고기잡이배가 집중하야 자못 번창한광경을 이루고잇다한다

水原治興橫行窃盜 永登浦署逮捕取調

【永登浦】시흥군 파천면신문리 ... 한시반경에 수원군일왕면서둔리(水原郡日旺面西屯里)이백사십번지 수원농사시험장(水原農事試驗場)의주사소에 침입하야 현장주임고뢰효일(高瀨孝一)씨소유의 세퍼서신여원자리 자전거 한대를 훔치가지고 도주하야 지난 사월까지 수원파시흥에서 전후 십회의절도질을하야오든것을 영등포경찰서원이 체포하야 방금취조중이라한다

開城各金融機關 拂出이훨신만허

【開城】지난사월중 개성부내금융기관은행 우편국 개성역등에서취급한 각종『위체』(爲替)상황을보면 수입총액이 일백칠십삼만팔천사백구십원이며 불출(拂出)에은 일백구십삼만원이라는바 수입보다 어신여만오천삼백사십원이 초과하엿다한다

受入金額一覽(單位圓)

支拂送金爲替	七七二、一五五
仕向取立手形	八四七、八二五
郵便爲替拂出	五九、三一七
振替貯金拂出	一七、五六三
小口代金引換	三九、八三三
小荷物代金引換	二七、七七五
貨物代金引換	四、〇二二

拂出金額一覽(單位圓)

送金取組	九〇〇、九二二
被仕向取立手形	九三六、一一五
郵便爲替拂込	四五、二九四
振替貯金拂込	六二、五三三
小口代金引換	五、〇九四
小荷物代金引換	二〇、九〇五
貨物代金引換	三三、九七三

地方人事

▲許 極氏(前仁川警察署外勤部長)依願退官後 仁川府廳財務課任命人事次 本報仁川支局來

▲秦鴻氏(溫陽有志)來江次本報江華支局來訪

▲淺野氏(京畿道山林課長)江華松寺公有林視察次去九日江華出張十日歸京

苑南町東小門間 幹線道路着工難
二十五戶아직不退로

경성부에서는 금년도에도 이백오십오만원을들여서 십여개의간선도로와 시가도로의 개수공사를 하기로되엿는데 그중원남정(苑南町)에서동소문(東小門)으로 통하는 연장일천삼백메돌 폭원 이십오미돌의 시공예정지는 사월초에착공하라고 벌써 작년부터 금년사월말까지 가옥철퇴를 하기로하야 지장이되는 민가칠십호의 매수를 마치엇는바 그중오십오호는 부청으로부터 이전보상비를바더 기한안에 이전을하엿스나 나머지십오호가 어업는것을리유로 그대로 남아잇서 보상비를 바고도 이전하지 안는까닭에 부당국에서는 아직공사에착수를 하지못하고잇는 형편이라고한다

石炭需給狀況協議 仁川商工會議所主催로

【仁川】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오는 십칠일오후두시부터 동회의실에, 부내석탄판매취급업자와 석탄사용공장관계자를 소집하야석탄수급관계문제에대하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종래에는 인천부내에서 사용되는 석탄은 만히사용되엿으므로 석탄업자 용은 격증하엿는데 현재에는 그 실정을 계속하는가 흔은 채탄량과 수송관계에잇서서 도저히 수급대로 도모하기 어려운것인 가 연애십여만돈의 석탄을 소비하는인천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할때는 수급기에석탄기근의 상을 조사하는일방 그대책을이 번회합에 연구하기로되엿다한다

京城府徵收係長 利川郡으로轉勤
不正事件發生關係?

경성부민의 이마살을 찌프리게하든 부이납세조합(府... 納稅組合)을 중심으로한 경성부세무과 징수계원 윤정희(尹正熙)등에관한 부정사건은 아직껏 부내본정경찰서(本町署)에서 취조하고잇거니와 종인의 취조에 분망한 게자와 윤정희가 근무하든징수계의 계장이어든 택전동시(澤田東市)씨는 갑자기 책임어 업지아잇슴으로 지난 십이일 게장의 자리로부터경기도리천군(利川郡)근무로전근이되고말엇다

學校新設、增級으로 二部戶別稅增額
仁川府今年度賦課額查定結果

【仁川】인천부에서는 지난십일일오후한시부터 부청제일회의실에서 부회의원 십필명의 출석으로 영정(永井)부윤의 통재아래 부회를열엇다 먼첨 부구역확장문제에 대하야 실행위원을 선정하고 의안(議案)에 들어서 호별세사정(戶別稅査定)에대하야 토의가잇섯는데 매년일반부민간에 불평이만어서 문제가 다단하얏섯는데 금년에는 도(道)에서 지정한 호별세(戶別稅額)이 작년도에 이만이백칠십삼원이든것이 금년에는 일만구천일백오십팔원으로 약일천원가량감소가되엇고 부세호별세부가세(府稅戶別稅附加稅)는 전년도 유만이천칠백오십이원으로 금년도에도 별다른 변동이업스나 제이부특별경제(第二部特別經濟)에 잇서서는 전년도에는 삼만오백이원이든것이 금년도에는 일약사만일백십오원으로 격증되엿다 이증가된원인은 가옥세부가세(家屋稅附加稅)삼천륙백오십이원을 금년도에는전폐케된것과 학급증가(學級增加)와 학교신설등으로 그가치 증액된것이라는데 이에대하야 부민의부담을보면 최하급이일원팔십전이며 상급에는 등급마다 삼십팔전이엿스며 부과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여하를 철저히조사하기로하고 동오후네시에 폐회하엿다

阿峴町保隣會 保護週間奉仕

서부경성의 사회사업에 오래

廿五個公小校서 婦人國語講習會
京城府에서奬勵實施

지난번에 총독부에서 전조선각지에 국어보급강습회(國語講習會)를 열게하야 쉬운국어를 단기에습득시켜서 황국신민의신념의향상을 도모하기로방침이 결정되엿섯는데 경성부에서도 이방침에따라 작년도에된 서강(西江), 청량(淸凉)과 금년도에신설된 두소학교를제외한 부내이십오개소학교에 오는 오월이십일부터 팔월이십일까지 석달동안과 구월일일부터 십이월이십일일까지 석달로 나누어서 강습회를 열기로되엿다 모집인원은 한학교에 육십명씩이고 부인반을 모집하기로 되엿는바 회비는업고 교과서도 무상으로 배부하여준다고한다 출석하기일은 오는십오일부터 십팔일까지이고 개강시간은 매일오후다섯시부터 일곱시까지이라고 한다

水原郡의綠化運動
苗木五十七萬株移植

【水原】수원군임업계(水原郡林業係)에서는 관내십구면일원에 산재한 오백순 봉산에 녹의(綠衣)와 천상(靑裳)을 입히고자 허군수의 지휘로 염원기수 긴기성씨가 목칩주야하고 노력한결과 금년봄에 식오묘목이오십칠만오천사백여주(株)이고 파종조림(播種造林)으로 종자(種子)가 오천오백여 그면적은 오백여정보에 달하엿다한다 수원군에서는 처음이큰조림이여서 이와가티 아프로이 삼년만 계속조림을하면수원군내에는 벌궁을노출한 적산은 춘기(春期) 추기(秋期)에도 조림을 하야 업서질것이라한다

國防婦人分會結成

일지사변이 생긴뒤로 조선안

영종도와 인천사이의 항로를 그와가티 삼십여명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면영으로하겟다고 주장하고 당국에 이러사연을두 차 진정하야 다른발동선이인천으로부터영종에 기항하지못하게까지하야 드듸여 동인조합에서 이항로를독점하게된것이다 이런 경과를 생각하야본다하더라도 창립시와는 그 취지가 전연달라서 영종면민들은 울분한 애써왓다한다 그반면에는 현재의 동인조합 간부들은 영리의기관으로 변경하고 면민의무지한점을 리용하야 면직영으로하지안코 동인조합(通仁組合)을조직하야

無智한組合員弄絡 出資證券歇價買占 ❷
組合創設面長證券은高價買入

仁川支局記者 李俊相記

직하야 주식증권과가티 출자증권을 발행하야 교부하는일방 장내 이를 매수(買受)하기에 편리하도록 또 허가(許可)명의가 고 박원상(朴元相)씨 개인의 명의로잇는까닭으로 이것도 적당한 시기에는 조합대표의 명의로 고치기로 주창을하면서 각동리의 구장(區長)이나 또는유력자 평의원(評議員)들에게는 선가를받지안코 무료도항케하고 연말에는 약간의선사도하야 그들의환심을사서 일단 무슨일이 발생될때에는 조합을위하야 선전 또는 제일선에서 활약을하도록 노력하여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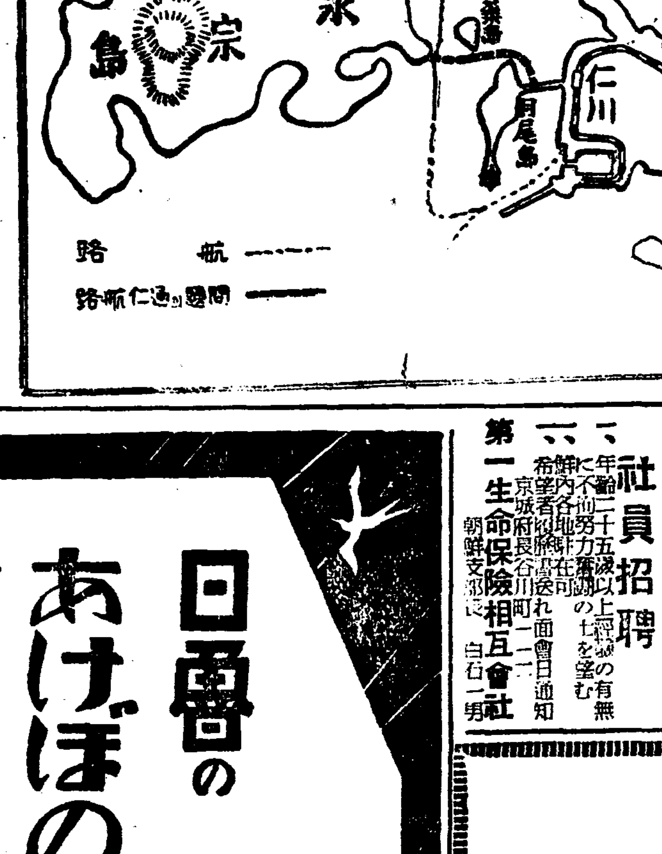
▼—▲

그리하야 모든일은 별고장업시 성취되여 참으로 그들의 예상과가티 고박면장(故朴面長)외부조합장으로 지금와 조합장파리사(理事)가 서임하게도엿다 역원지위과 아울러 영종도와 그

조합은 발전에발전을 거듭하야 왕내하는 승객도 점점 만하서 막대한 리익을보앗다한다 그와가티 리익이 만히남는것을 예상한 그조합간부들은 먼저 각개인에게 교부한 출자증권(出資證券)을 악아리에 다량으로 사서 자기의 명의로 고치고 혹은원 명의로 그대로 두기도 하고 또다른 삼사명은 만치도안치만은 자기의 아들과 안해의 어

리일반 조합원들이 그것을 변상치안흐면 안될터이다 그때는 그조합원에 대하야 만히가진 사람들은 만히내게될터이므로 두드리도 언제나 손해가난다는등의 감언리설로 그들을 속여서 불름에도사고 또 제일만히 주고산것이 불름에 삼사배를 준것도 잇다한다 지난번에 부조합장이요 면장이요 또허가의명의를가진 박원상(朴元相)씨가 작고할때에 즉 오명하기전에 동조합리사와 수삼인의 간부들은 바로노코 아무라도 어세상에 더살기는 바라기 어려운 터인즉 내가 이명으로인하야 진빗(價)이 거액에달하는데 인즉 이빗을 아들에게 물려줄수는업는즉 내명의로 잇는 그증권을 계산하야 내가 사럿을때에 돈을바꾸어 달라는 부탁이 잇고서 그만 이세상을 떠낫다한다 그러나 그증권은 개인의 사재가아니고조

한의론을내여 못는때는 역원회나 그러치안흐면 임시총회를 열지 안흐면 아니됨으로 먼저역원회를개최하얏다한다 그런의 결의인지또는 면역간부의 주창인지는몰르나 동인조합은 이박원상하는의미로이지 박씨의 명의로 잇는 그증권만은 원금에 대하야 십삼배의 계산으로 그아들되는 박영진(朴英鎭)씨에게 계산하여 주엇다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조합간부의 처사가 정당한 처사라고



貸金業者事務員 大金消費코綻露

【水原】수원읍남수정에사는 이귀회(李貴會)라는노인은 칠십당년한 늙은몸으로 대금업으로 살아가는 작년봄 우연한기회에 수원읍본정박점석(朴點錫)이라는사람을만나게되야 박점석은 어귀회노인에게 말하기를 연로한몸으로 대금업에 조사하기가 어려울터이니 자기가 돌보아주라고 감언이설로 꾀이여결국은 승낙을 어든뒤에 현금까지 자기손으로 출납하게 된것을 기화로 타인의 인장등을 위조하야 허위차용증서도 작성하고 대부회수금도 횡령하야 호화로운생활로 호의호식을 하다가 수일전에 발각되엿다 그피해금액은 삼천여원에 건수로는 백여건이고 인장위조가십여건이라한다

發展仁川府內에 極貧者四八〇戶
隣保舘과鷄林慈善會서奉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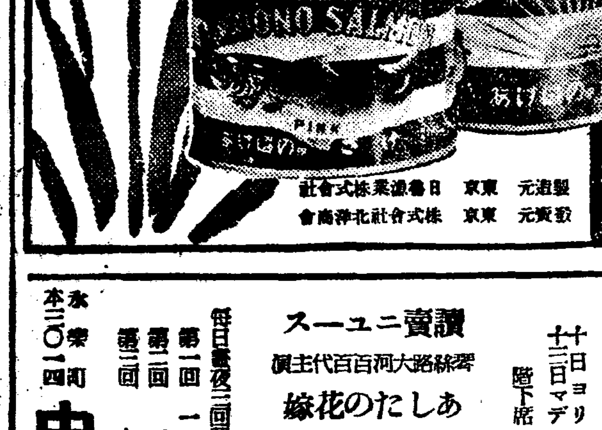
【仁川】근간인천부에서는 부역확장으로인하야 현재 십이만인구를 포용한 그 이면에는 궁세민도 상당히격증하엿다 사월현재로 인천부린보관(隣保舘)의 조사한바를보면 궁세민이 삼천삼백여호로 이들은 일정한 직업도업시 그날그날의호구는 할망정 한푼의여유도업시 순산을 하든지 또는 불의에 사망할때는 인보관(隣保舘)에서 그비용을 보조하야 준다하며 또 극빈자들은 사백팔십여호로 이들은 전연 할주업는 극빈자들로서 어떤 불의의일을 당할때는 린보관과 인천계림자선회(鷄林慈善會)의 보조로 린보관에서는 사망시에 류원을 지출하고 순산을 할때에는 그산모와 아히를위하야 매일 백미세홉식을 준다하며 또 계림자선회로부터 팔원을주고 산모가 잇슬때에는 오원식을 지출한다하며 그리고 전속으로 룡동의원(龍洞醫院)정문환(鄭文煥)씨를 촉탁으로하야 일반 극빈자들의 병치료를 하게하는등 또산파를두어 산모가 잇슬때는 그것을 치료하도록 한다는데 제일중인 극빈자의수가

開城優良兒童 二十名을褒賞

【開城】아동애호주간중 개성부 도립의원에서 지난칠일 유아(乳兒)(만한살미만)사십이명에대한 건강심사가잇섯고 그이튼날은 유아(幼兒)(만한살이상 여섯살미만)에대한 건강심사를 실시하엿는데 심사결과 건강발육 우량자로 포상(褒賞)된유아는이십명이다 그들의씨명은 다음과 갓다

▲乳兒部 玄明子 木村嘉樹 久野猛 金明烈

▲幼兒部 崔善根 禹相奎 一鎬 金知宗 金錦愛 眞田照與 秦榮慶 孫瑛子 河鳥映 金周成 張英子 金東熙 張錫俊 秦敦昌 金永纖 白承民


日魯の あけぼの印 オーロラ印 さけ罐詰
タテ罐を新に賣出しました 平罐同樣御愛用願ひます
製造元 東京 日魯漁業株式會社
發賣元 東京 株式會社北洋商會

社員招聘 一、年齡二十五歲以上 一、鮮內各地に勢力ある方 希望者は履歷書持參 京城府長谷川町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

自動車 運轉手資格 京城自動車學校

募集 六歲부터廿歲까지의少年少女 京城西大門局 朝報社

朝報案內

時計士養成 京城府北阿峴町 京城時計修理院

癩病全治

純胚芽

돈벌기大王 リート式穀物膨脹機

五合의쌀이八升가되는米菓子製法傳授
大阪市北區 兒島製作所 (電話北3238番)

봄과 여름을
타시는분도
아지노모도친
음식이면 구미
를일키는거녕
놀낼만큼
식욕이 증진
되지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武田發賣品
月經不順
○月經이적어서身體의調節이나쁜분
○月經이過多해서困難한분
○結婚期前後에이러나는神經衰弱
○四・五十歲頃의月經閉止期에이러나는頭痛・眩暈・耳鳴・腰痛・足腰厥冷
女性ホルモン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르몬)
女性호르몬이不足한까닭입니다 早速히女性호르몬을補하는 오바호르몬을服用하시는것이必要합니다 그作用은全身的이여서 婦人科內의여러가지婦人病에奏効하는理由는 女性의生理機能을活潑케하는까닭입니다 오바호르몬을服用(又는注射)하면症狀은消退할뿐아니라 皮膚의光澤이더하야 젊어지고 食慾도늘며 血色이조아저서 疲勞도업서집니다 女性의健康과젊음을爲하야오바호르몬을推獎합니다

【價格】 錠劑 粉末 注射液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川崎市大宮町 帝國臟器製藥研究所

新富座 京城新堂町 (本)五六七七番
五月十日부터十三日까지四日間
日活映畫社超特作全發聲版 大名篇 大金剛山の譜 監督 水ヶ江龍一氏 主演 崔承喜 江川宇禮雄
ワーナー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爭活劇 沙漠の朝 監督 우이리암떼ー다레 主演 께ー호리즈 로에르로링
全勝キネマ社大作オールトーキー 怪獸劇江戸に現れたキングコング 前篇 監督 熊谷草彌氏 主演 松本榮三郎氏 美島麗子嬢
特別名畫週間 土、日、祭祝日晝夜三回、正午十二時 普通日二回 晝一時 夜七時三十分始映 階上席二十錢 階下二十錢均一

桃花劇場
五月十日부터十三日까지四日間 每日晝夜二回 一時半 六時半 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松竹キネマ社全發聲版 爆笑劇 幽靈が死んだら 監督 齋藤寅次郎 主演 山田長正 小倉繁 横山淳 若宮満
○ユナイテット社超特作全發聲 チャップリンのカルメン 自己監督自演チャリチャップリン ○三映社提供
戰爭戀愛活劇 鎧なき騎士 監督 작크회델 主演 말네네도렛티 로바트도낫트

漢江
人間の精魂を傾注した無類大豪華版 五月六日より超特別大興行! 新興東京 牛島映畫社 監督作品!
朝鮮語全發聲 金一海 李錦龍 尹逢春 具愛永
肉彈山岳戰

優美館 市內貫鐵町 電光三九五
十一日ヨリ十三日マデ 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公開
女傑다ー산 監督 하리무레이사氏
主演 妖星 東日大每ニュース 支那事變戰捷ニュース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每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一二、三〇 第二回 三、四〇 第三回 七、一〇
讀賣ニユース
あしたの花嫁 琴線路大河百百代主演
絶海の爆彈兒 リチヤード・タルマツチ主演
赤尾の林藏 杉山昌三九久佐間妙子主演

演藝娛樂

劇團劇硏座 革新第一回公演 來卄八、九兩日府民館서

열년동안이나 지욕을 계해왓든 극연(劇硏)에서는 연극공을에 출연우(중한이후 지난번 신극집단(新劇專門劇團)으로진출하는동시 극단극연좌(劇團劇研座)라고 개칭하고 신출회공연을 혁신제일회공연으로 하게되리라는바 레퍼—토리、일자는다음과갓다

公演日 五月二十八日、九兩日
場所 太平通府民館
레퍼—토리
1、『길』全四幕（金鎭壽作劇研戲曲賞當選作）
2、자닛、막스原作 李曙鄕譯『뻐국새』全一幕
演出—『길』李曙鄕 『뻐국새』李白山
出演者 李雄 金一英 李白水 李奠 尹方一 安福祿 金慶乙 李元業 李相龍 金福鎭 金映玉 姜貞愛 朴亨淑 吳福童 外諸氏

柳致眞氏의原作『圖生錄』九卷을完成한監督尹逢春氏와 主演俳優一行이 記念人事次十一日本社를來訪하다

十三日（金曜）

◇正午（東）時報 （名）管絃樂 名古屋交響樂團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主婦의責任』京師 早川彌左衛門 張和順
◇同六時 맨돌린合奏 一、크ㅣ시코쓰의우체브ㅣ 빅크作曲 二、헝거리舞曲『미레ㅣ나ㅣ』마촉킨作曲 三、가봇트 곳세作曲 四、작란감巡邏兵 森下三夫作曲 五、歌劇『카르멘』拔萃曲 비제ㅣ作曲 六、歌劇『椿姬』拔萃曲 베르듸作曲 京城프레트럼소사이에티ㅣ 指揮 金井秀夫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人格敎育에對하야』佛專 金斗憲
◇同七時三〇分 一、平調念佛 二、자진念佛 三、寧邊歌 四、자진難逢歌 五、難逢歌 白牧丹
◇同八時（東）獨唱과獨奏（第六回音樂家入賞者） 一、피아노獨奏 卽興曲C샤프短調 作品三十六 쇼팽作曲 二、뻬스獨唱 가、悲哀歌 듀팔크作曲 나、歌劇『파우스트』中 구노ㅣ作曲 에피스트세레나ㅣ드 三、빠이올린獨奏 빠이올린協奏曲G短調 부르흐作曲 피아노獨奏 藤田晴子 뻬스獨唱 [illegible] 伴奏 三宅五十彦 빠이올린獨奏 伴奏 津田아야코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沈淸歌 唱 金如蘭 鼓手 韓成俊
◇同九時 時事解說 成同勳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六） 朝鮮日報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一四）
◇正午（名）管絃樂
◇午後六時（城）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大）歌謠
◇同七時四〇分（東）講演
◇同八時（東）獨唱
◇同八時三〇分（東）講演
◇同九時（東）時事解說

十四日（土曜）

◇正午（東）時報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榮養이야기』醫博 金東益
◇同二時五五分 第四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中央朝鮮豫選實況（京城）全普專—全延專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옥수어와흥이』秦賢瓛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紫外線이야기』城大 崔羲楹
◇同七時三〇分 講演（京城）『季節과犯罪』鍾路警察署警部補 金道源
◇同七時三〇分 講演（平壤）『金笠이와그의詩』趙鍾黙
◇同八時 라디오드라마『大河』馬太夫作 配役（放送順）
張英子（醫學博士의女學生）車紅女
玉心（그집下女）車敬愛
金紅順（文科女學生）金淑英
朴石喆（文科大學生）黃淑瀛
梁在英（法科大學生）李東湖
尹哲東（商科大學生）卞元圭
宋亡人安氏（映子의母）柳海初
看護婦 李吉宰
張天植（映子伯父）金東圭
張玉男（天植의아들）趙美鈴
鄭甲炳（辯護士）韓一行
校長 卞基鍾
靑春座
◇同八時四〇分 俗謠 一、아리랑 二、오돌독 三、興打鈴 四、淸江水打鈴 黃順子 金梅月
◇同九時 正樂 釜山會館中繼 玄琴 李彦稙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李炳善 杖鼓 池龍九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十五）
◇正午（大）尺八
◇午後〇時三〇分（東）野球
◇同六時（東）歌稽古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大）歌謠
◇同七時四〇分（東）講演
◇同八時（大）時調
◇同八時三〇分（仙）俚謠
◇同八時五〇分（東）小說

十五日（日曜）

◇正午（東）時報 맨돌린合奏 一、序曲『音樂의나라에서』케ㅣ라ㅣ作曲 二、원나의藝術家 介탐멜作曲 三、세레나ㅣ데 介ㅣ베르트作曲 四、支那洞里의세레나ㅣ데 지ㅣ데作曲 五、幻想曲『田園祭典』가、前奏曲 나、農夫合唱 다、사랑의牧家 라、파란돌舞曲 쥬리어作曲 城大맨돌린클럽 指揮 金容駿
◇（午）蹴球 第十四回全朝鮮蹴球大會實況 —奬林里公設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午）少年小說『相浩와英愛의日記』作과朗讀 韓泰泉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普成中學 朱鍾宣
◇同七時三〇分 新民謠 一、방아打鈴 二、梁山道 三、도라지打鈴 四、興打鈴 五、닐리리야 張一梁紅 伴奏 DK管絃團
◇同七時五五分（東）앗코ㅣ듸온合奏 一、킹·칼·마ㅣ치 연레스作曲 二、세레나ㅣ데 메트라作曲 三、커스멘트 마ㅣ커ㅣ作曲 四、宮闕序曲 케터ㅣ베타作曲 독보·앗코ㅣ듸온·밴드 指揮 大塚潤一郎
◇同八時一五分 野談『馬頭娘』車靑吾
◇同八時四五分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曹弄玉 曹弄仙
◇同九時一〇分 유모어콩트『結婚春秋』—春秋作 配役 申永植 金元浩 愚玉 金映玉 어머니 卜惠淑
◇同一〇時一〇分 風習講座 數詞의同一 西村眞太郞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十五）
◇同六時四五分（城）小鳥啼聲
◇午後〇時二〇分（東）野球
◇同六時（名）童話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六時三〇分（大）日曜演藝
◇同七時五五分（東）앗코ㅣ듸온
◇同八時一五分（城）尺八
◇同八時三五分（大）千人合唱
◇同八時五〇分（東）小說

〃十三日의金曜日〃 ―永遠한常綠『그대와춤추면』에 主演한 舞姬『제신·마슈ー즈』와 主演으로 監督은『사비ㅣ르』다 이映畫는 춤을 主體로하지안코『金曜日』밤에 생긴일을 主로하야 맨든 近來에 드믄映畫다 十三日부터 黃金座에서『令孃殺人犯人』과 同時封切

運動競技

올림픽競技場施設費 千二百卄八萬圓承認

東京市會올림픽委員會는 九日午後駒澤에서 主競技場 올림픽村 水泳場 陸上競技練習場等의 各施設案과 및 土地買收費 御茶水의 室內競技場建設費等 豫算總額一千二百二十八萬圓의 豫算案細目에 關하야 審議한後 이것을 承認하엿는데 五、六日頃에開會할 市會本會議에 上程하야 可決만되면 諸設施의 實施에 着手할터이라한다 一方土木事業常設委員會에서는 主競技場駒澤建設案에 附帶하는 道路計畫一千萬圓의 豫算은 今週或은 來週中에 審議하기로되엿스며 東京大會施設建築豫算 一千二百二十八萬圓의 內容은 다음과갓다(單位千圓)

◆主競技場 五、九四〇◆水泳場 一、四三三◆올림픽村 一、二八二◆總內體育館 九七〇◆室內體育館 一、〇一五◆自轉車競技場 五〇〇◆其他雜費 一五〇

重量擧日本新記錄

東京YMCA體育會員重量擧選手權大會는 九日午後七時半부터 神田YMCA에서 올림픽候補選手十一名이 參加한가운데 擧行하엿는데 五十一瓩級에는選賢君(警視廳)이 總計二二五瓩의 日本新記錄을 樹立하엿다한다
【五十一瓩級】 推上 六七·五키로（日本타이記錄） 引上 六五키로（日本新記錄） 擧上 八二·五키로（日本新記錄） 總計二一五瓩 選賢君（警視廳）
【五十四瓩級】 甲斐選手（YMCA） 引上 五七·五키로（日本新記錄）

米國메자ㅣ리ㅣ그

【紐育九日發同盟】 米國職業野球『메ㅣ자ㅣ리ㅣ그』 第三週를마치하야 兩리ㅣ그가 모두本格的으로 爭霸戰에 드러갓는데『아메리캔리ㅣ그』에서는 先週에繼續하야『인디안스』가 十二勝六敗로써 依然首位를 占하고잇스며 前年의 覇者『양키ㅣ스』는 十三勝七敗로 第二位에 處하야잇서 依然王座를 노리고잇다그리고『내쇼낼리ㅣ그』에서는『자이안스』가 依然强味를 보여고잇서 十六勝三敗로 斷然第一位의『컵스』軍을 훨신 떠러트리고잇다

長篇小說 濁流【195】

蔡萬植 作 鄭玄雄 畫

內菩薩·外夜叉（9）

초봉이는 안신방을 마저따오로 나오라면서 회의 방번을 흘리본다. 역시 미진하게 잇다면 엄마던지 엇겟스나 세방 여경황중에는 어찌할수 업는것들이다.

남시색 재병 천의를 더피엿운 형보의 시선우에 눈이제 훌로 머준다. 인제는 꽁지털도안는 송장, 송장이거니 해야 몸이 쭈변하거나 무섭지도 아타.

항용 남놓치럼 사람을 해하고 난 그뒤에 오는것―가령 막연한 공포라던지 순전한 마음의 죄책이라던지 다시또 그뒤에 오는것으로 장차에 싸올법의 형벌이라던지 그런것은 동허 생각이 나덜안한다.

단지 천행으로 어루어전 여결과에 대한 만족과 얼떤 원수의 무사태평함에 대한 서게(嫉妬)와 이두가저의 상극된감정이 서루 반발을 할 따롬이다.

이윽고 마루로 나와 메다저를 닫고 돌아서다가 문득 얼굴을 찡그리면서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더니! 저승에두 가치 가야하나!』

쓰디 쓰게 씹어뱃는다.

미상불 징그럽기도 하려니와 창피스런 깐으로는 저기나하면 이놈의 집구석에서 약을먹고죽을께아니라 철시도길목이든지한강이든지 나갓스면시펏다.

건넌방으로 건너와서 그동안잠이든 송이를 아랫목으로내려뉜다. 뉘면서 송이의 얼굴을 디려다보느라니 비로소서름이 소스라처 눈물이 쏘다진다.

서름에 매겨 언제까지고 울고시픈것을 뒷일이 총총해 못한다. 흘려 넘치는 눈물을 씻스면 흘리면 개봉어의 경대를 닷어노코 머리를 벗엇다. 단장은 햇스나 눈물이 자꾸만 맹처놋는다.

마지막 새옷을 차악 갈어엽는다. 옷까지 갈어엽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기분이 산뜻한것 가텃다.

유서를 썻다. 비회가 못보다 아플서고 또 쓰기로 들면 얼마던지 장황하겟서서 아주형식적이요 간단하게 부친 정주사와 모친 유씨한테 각각 한장씩 썻다.

계봉이한테는 송이를 장추가주 부탁하는다고 좀 자상햇다 승재와 결혼을 하는것이 조켓다는 말도햇다.

유서 석장을 각각 봉해가지고 다시 한봉투에다가 너허 것봉을 부주전상서라고 썻다.

마침 아홉시 반이 되어오다 언제 한시분이면 계봉이가 오고 오면은 선자리에서 송희와 돈지갑과 유서와 주렁크를 내주면서 정거장으로 쪼처보내다 모친이 병이 위급하다는 전보가 왓는데 형보가 의징을내어 못내려가게하니 너먼점 송히를 데리고 이번 열한점 차로 내려가면 나고라건 몰래 분하게잇다가 눈치보아가면서 오늘밤에못가더래도 내일아침이고 밤이고 몸을 빼처 내려가마고、이러케 돌롤 요량이던 것이다.

유서의 것봉을 부친한테 한것도 그러한 의사가잇기때문이다.

어것은 미리서 게획햇던것이아니고、당장 꾸며낸 의견이데、소위 개집의 야른 꾀지만 아무려나 만이 근리하기는 근리햇다.

그는 계봉이를 송히와 압량해서 그리케 시골도 내려보내노코 최후의 거사를 해야망정어지 어흥악한 살상의 뒤끄틀 그애들한테다가 맥겨다께 절대로 불가한 노릇이라 해섯다. 사실그러한 뒤끈심이 아니고서야 유서나머리마테 노하두고 이지 어정 계봉이를 기대리고 진작 약그릇을 집어 들엇슬것도 업던것이다.

그러나 막상『필요』자 그러한 연유로해서 기대린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면을 하게되는 것이 그것이 초봉이에게는 오허려 뜻이잇고 겸하야 커다란 기쁨이 아닐수업섯다.

유서까지 써노핫고 허니 준비는 다아되엇다.

언재는 계봉이자 돌아올 동안에 교갑에다 약이나 재이자 고○○병을들고 안지니까 먹고죽을 사약이 쓴걸 게려는 제자신이 하두 서구퍼 코웃음을 하면서 도루 밀어놋는다.

하고 그것보다는 남어지 섭분을 송히의마지막 얼때 노릇을 할것이긴한테 어저버렷던걸깨다럿다.

그래 마악 책상아프로부터 래쪽의 송희에게로돌아안지려고 하는데 이때 마친 계봉이가우당통탕 황급히 언니를 불러웨치면서 달려 드럿던것이다.

달려드는 계봉어는 미쳐 방으로 드러가지도 못하고 마루로 난 쌧문 문턱에 우뚝 서 라질듯 목안엣 소리로

『언니!』

부르면서 눈에 눈물이 도옥 독형의 얼굴을 송히를 주렁크를 스스 스명을…이러케 회의 둘러 보다가 다시 형을 마주본다.

カロリー液增熱劑製造元 朝鮮燃料工業研究所 釜山工場 釜山府釜田里 電話二三〇八番

慶南水產會 釜山府大橋通二ノ七一 電話一一〇番

釜山府本町二丁目廿五番地 株式會社 立石商店

姜基欽

理研清酒新世界釀造元 大鮮釀造株式會社

㊎葡萄酒釀造所 加地益太郎 釜山府大新町 電話二五四三番

祝 紙齡六千号 革新五周年

釜山府瀛州町 高級朝鮮料理 瀛春館 電話二五七八番

內科小兒科專門 東山醫院 院長 金炯璣 釜山府瀛州町 電話一九八〇番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釜山支店

回生醫院 院長 愼業縡 釜山府凡一町（電車終點） 電話八六九番

三和護謨株式會社

外科耳鼻咽喉科專門 永濟醫院 院長 李貴興 釜山府草梁町 電話二六三二番

機張土種人蔘本舖 玉蒲藥局 主 崔翔甲 釜山府草梁町五六三 電話二六〇四番

釜山府榮町三丁目草梁入口 內臟外科 整形外科 一般外科 泌尿器科 レントゲン科 濟生外科 醫學博士 郭在禧 電話三一一六番

內科 小兒科 神經科 亞細亞醫院 醫學士 李春男 釜山府草梁町 電話一三七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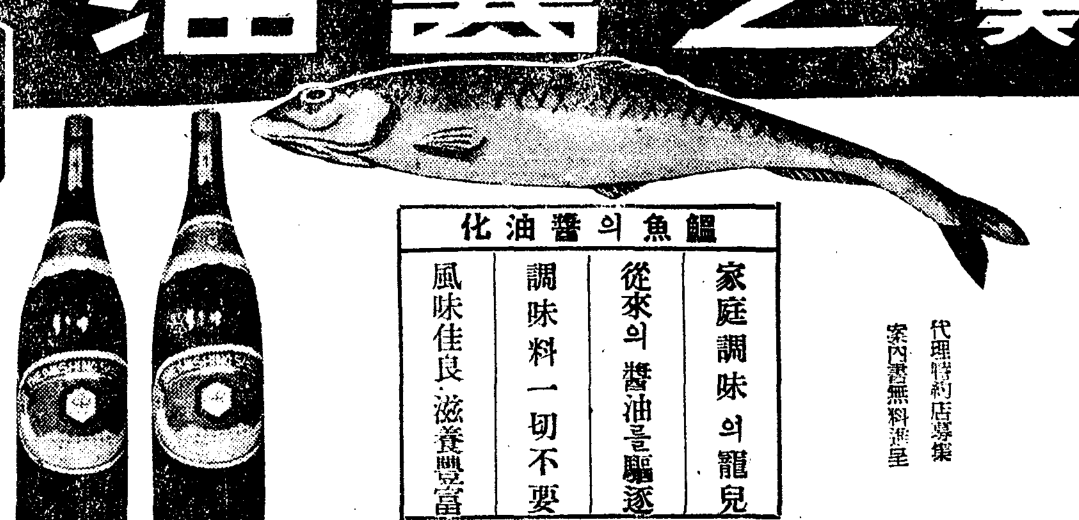
辯護士 金埈源 釜山府中島町 電話五〇八番

眼科 耳鼻咽喉科 東光醫院 院長 金龍錫 釜山府草梁町二三二 電話一一三八

外科專門 皮膚科 李瑾鎔醫院 釜山府瀛州町五九二 電話九四五番

肺病 學生에限하야 外上提供
今般本院에서 多年計劃하든配給所를中央에設置하고 京城市內의學生에限하야 肺病專門內服藥을 健康體完全恢復될때까지外上提供하오니 來談하야주시오 但病勢가危篤한患者에게는外上은 勿論現金注文도謝絕합니다。
回春藥院京城配給所 京城府內需町九一番地 電話光化門(3)二四三四番 振替京城二九五〇〇番

鰮之醬油 登錄商標 特許出願第一五三三号
調味界의驚異 鰮魚醬油出現
鰮魚의醬油化: 家庭調味의寵兒 / 從來의醬油를驅逐 / 調味料一切不要 / 風味佳良滋養豐富
代理特約店募集 案內書無料進呈
釀造元 朝鮮釜山牧之島 鶴賀商事合資會社 電話長牧島二二〇番



엠푸라치나 MPM 特許 專賣
白金 科學 エムプラチナ 地金ト製品ノ卸
純白金と變らぬ
當業者ニ限リカタログ進呈
金銀白金地金商 岩崎商店 釜山府幸町二ノ四五 電話長一五一五番 振替釜山一六一七番

彬乙魚 萬病水錠
最高의治病劑 病毒과體毒에
主効 梅毒 痰痛 痔瘡 骨痛 瘰癧 吐痰 皮風 大瘡 腎熱 陰戶熱 連珠瘡 腰痛症 數溺症 筋肉痛 骨節痛 遺毒瘡 半身不隨 動脈硬化
藥價 一瓶 二圓五十錢
釜山府榮町 魚乙彬製藥株式會社

樺太廳營證明附

補精腎氣强壯劑 眞品海狗腎
總發賣元 朝鮮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